

**서울시 노동시장구조의
특성 및 변화에 관한 연구**

2011. 8.

다산경제연구원

- 연구 과제명 : 서울시 노동시장구조의 특성 및 변화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1년 5월~2011년 8월
- 연구 수행자

연구책임자	장창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이상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정정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 목 차 】

요약

제1장 서론 1

제2장 서울시 산업구조 3

 제1절 세계속의 서울시3

 제2절 서울시 산업구조의 특징 및 변화6

제3장 서울시 취업구조의 특성 및 변화 19

 제1절 우리나라 취업구조의 특성 및 변화19

 제2절 서울시 취업구조의 특성 및 변화 추이 분석31

제4장 서울시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전망 57

 제1절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취업구조 변화57

 제2절 서울시 취업구조 변화 전망61

 제3절 지역 노동시장정책(고용정책 및 교육훈련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68

제5장 결론 73

제1절 정책적 시사점73

제2절 인력수급 전망을 위한 인프라구축 방안75

참고문헌79

■ 표목차 ■

<표 II-1> 서울시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추이 8

<표 II-2> 서울시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추이(전국 대비) 11

<표 II-3> 수도권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2009년) 16

<표 III-1>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20

<표 III-2>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22

<표 III-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구성비 25

<표 III-4> 서울시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 34

<표 III-5> 서울시 주요 노동시장지표 36

<표 III-6> 서울시 취업자 증가율 추이 39

<표 III-7> 수도권 취업자 증가율 추이 40

<표 III-8> 서울시 산업별 취업자 42

<표 III-9> 서울시 산업별 취업자 비중 43

<표 III-10> 수도권 산업별 취업자 비중(2010년) 44

<표 III-11> 서울시 직업별 취업자 46

<표 III-12> 서울시 직업별 취업자 비중 추이 47

<표 III-13> 서울시 직업별 취업자 비중 추이(전국대비) 48

<표 III-14> 수도권 직업별 취업자 비중(2010년) 49

<표 III-15> 서울시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51

<표 III-16> 서울시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비중 추이 52

<표 III-17> 서울시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비중 추이(전국대비) 53

<표 III-18> 서울시 학력별 취업자 54

<표 III-19> 서울시 학력별 취업자 비중 55

<표 III-20> 서울시 학력별 취업자 비중(전국대비) 55

<표 IV-1> 서울시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 62

<표 IV-2> 산업별 취업자 비중 전망 63

<표 IV-3> 서울시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 64

<표 IV-4> 직업별 취업자 비중 전망 66

<표 IV-5>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서울시 취업자 전망 68

「그림목차」

[그림 II-1] 서울시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추이	7
[그림 II-2] 서울시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추이(전국대비)	9
[그림 II-3] 서울시 산업별 취업자 비중 추이	13
[그림 II-4] 서울시 산업별 취업자 비중 추이(전국대비)	14
[그림 II-5] 수도권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2009년)	15
[그림 III-1] 우리나라 인구규모 추계와 여성 비중	32
[그림 III-2] 서울시 주요 노동시장지표 추이	37
[그림 III-3] 서울시와 전국의 취업자 증가율 추이	38
[그림 III-4] 수도권 취업자 증가율 추이	40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21세기 지식기반 사회 및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이행하면서 고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서구 선진국에서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요인으로서 고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용정책의 수립 및 적용 등에 있어서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음
- 고용정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고용현황과약을 토대로 향후 예상되는 노동수요와 공급을 감안한 인력수급전망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신뢰성 높은 인력수급전망을 실시하기 위한 인력수급전망에 필요한 기초통계 부족, 분류체계 미정립 등 인력수급전망 관련 인프라 체제 구축의 미비로 고용정책이 효율적으로 진행 되는데에는 어려움이 존재함
- 이러한 제약요인하에서도 국가차원의 총량전망은 거시적 차원의 다양한 국가통계가 존재하는 등 기본적인 통계인프라가 구

축되고, 정부의 고용정책수립을 위한 총량모형 개발 연구를 통해 국가전체의 인력수급 전망을 도출하는 전망체계가 구축됨

- 그러나, 광역지역별 고용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총량전망에 비해 좀 더 세부적인 기초통계가 요구되지만 관련된 기초통계인 프라의 구축이 미비한 실정, 인력수급 전망에 필요한 현황 파악은 미흡한 실정이어서,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는 광역지역별 고용정책 수립에 적합한 인력수급전망에 앞서서 광역지역별 노동시장 현황분석이 필요한 실정임

□ 연구 목적

-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해 나갈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고용정책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체계의 구축과 더불어 사전적으로 노동시장의 현황분석이 필수적임
 - 특히, 광역지역별 고용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광역지역별 고용정책 수립에 적합한 인력수급전망과 더불어 광역지역별 노동시장 현황분석이 필요한 실정임
 - 광역지역별중 서울시는 2010년 현재 전국인구(5,051만명)의 20.4%인 1,031만명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으며, 취업자의 경우도 2010년 현재 전국 취업자(23,829천명)의 20.7%(4,936천명)를 차지하는 광역지역이며, 향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임
-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고용정책수립의 기초자료가 될 신뢰성 높은 인력수급 전망 작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노동시장 구조 및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2. 서울시 산업구조의 특징 및 변화

- 서울은 우리나라 최대의 인구 밀집 지역이면서 동시에 산업생 산기반의 집중(2009년 GRDP의 23.8%)되어 있는 지역임
- 서울시 산업구조의 변화를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추이를 통해 살펴보면, 2009년 서울시의 산업구성은 개인·사업·공공서비스 및 기타가 39.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운 수·통신·금융업이 32.9%, 도소매·음식숙박업이 18.6%, 광 공업 4.5%, 건설업 4.2%, 농림어업이 0.2%를 차지하고 있음
- 농림어업, 건설업 및 광공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꾸준히 증가
 - 도소매·음식숙박업은 2000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 나 지난 20여 년간 18%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사업·공공서비스 및 기타는 4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전국 대비 서울시의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추이
 - 2009년 전국 대비 서울의 지역내총생산(GDRP) 비중은 23.8%임
 - 부가가치는 전국 대비 23.7%로 국내 총생산의 약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전국 대비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전기·운수·통신·금 융업으로 4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이 40.4%, 개인·사업·공공서비스 및 기타가 29.9%임
- 서울시의 산업별 취업자 비중을 통해 산업구조의 변화를 살펴

보면

- 농림어업과 광공업의 비중은 1990년대 이후 완만하게 감소 하는 추세이며, 전기·운수·통신·금융업과 개인·사업·공공 서비스 및 기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 광공업은 1989년 전체 취업자의 32.0%(1989년) → 10.8%(2010년)로 감소
- 개인·사업·공공서비스 및 기타는 26.1%(1989년) → 38.4%(2010년)로 상승
- 서울의 산업별 취업자가 해당 산업의 전국 취업자에서 차지하 는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 2010년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국 취업자의 20.7%를 차지
 -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이 27.9%로 가장 높고, 도소매· 음식숙박업이 24.5%, 개인·사업·공공서비스 및 기타가 23.2%, 건설업이 21.3%를 차지
 - 광공업(13.2%), 농림어업(0.4%)의 비중은 낮음
 - 지난 20여 년간의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을 제외한 대부 분의 산업에서 전국 대비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3. 서울시 취업구조의 특성 및 변화

□ 주요 노동시장 지표

-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는 8,015천명(2000년) → 8,384천명(2010 년)으로 연평균 0.5%씩 증가
 - 이는 전국 생산가능인구의 동기간 증가율 1.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 경제활동인구는 동기간 연평균 0.5%씩(전국은 1.1%)씩 증가하여 2010년 5,180천명이며, 이 가운데 취업자는 2010년 4,936천명으로 연평균 0.6%(전국은 1.2%)씩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는 3,205천명(전국 비경제활동인구의 20.2%)
 - 실업자는 244천명(전국 실업자의 26.5%), 실업률은 4.7%(전국 3.7%)
 - 전국과 비교하면 서울은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의 증가율이 전국에 비해 낮은 반면, 실업률은 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
- 산업별 고용구조
-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는 21천명(1990년) → 6천명(2010년)으로 지속적으로 하락
 - 건설업은 402천명(1990년) → 374천명(2010년)으로 연평균 0.4%씩 꾸준히 감소
 - 제조업은 1,320천명(1990년) → 532천명(2010년)으로,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8%(1990년) → 10.8%(2010년)로 감소
 - 반면에 전기·운수·창고·금융업은 연평균 5.6%씩 증가해 1990년 대비 약 524천명이 증가한 790천명으로,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0%(1990년) → 10.0%(2010년)로 증가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는 연평균 2.4%씩 증가하여 2010년 1,894천명,
 -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연평균 0.4%씩 증가
 - 이처럼 제조업의 1990년대 이후 비중감소는 제조업의 서비스화 진전의 영향으로 과거 제조업에 속해있던 업종들이 분할되면서 서비스업에 재편되어는데 크게 기인
 - 서비스업의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인데, 특히 사업·개인·공

공서비스 및 기타에서 취업자 수 증가를 선도할 것으로 전망

□ 직업별 고용구조

- 2004년~2010년 서울시 직업별 취업자 연평균 증감률을 살펴보면
 - '농림어업 숙련종사자(4.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3.6%)', '단순노무종사자(2.9%)', '사무종사자(0.5%)' 등은 증가하는 추세
 - 반면,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4.0%)', '판매종사자(2.2%)', '관리자(0.7%)' 등은 감소하는 추세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도 연평균 3.5% 증가하여 2004~2010년의 기간 중 239천명이 증가하여 전체 직업 중에서 취업자수가 가장 크게 증가
 - 이에 따라 전체 직업에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04년 20.9%(2004년) → 25.3%(2010년)로 증가
- '사무종사자'는 3,297천명(2004년) → 3,971천명(2010년)으로 증가
- '단순노무종사자'는 지식기반사회의 발전에 따라 전문핵심인력 못지 않게 단순기능인력으로 대표되는 이들 직업의 인력수에도 꾸준히 이어져 2010년에는 614천명 증가
- 전국대비 서울시 취업자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관리자, 서비스 종사자,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중은 증가하였지만,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판매종사자, 기능직 및 조립조작직의 비중은 감소함

□ 종사상지위별 고용구조

- 임금근로자는 1990년 3,182천명(71.9%) → 2010년 3,733천명

(75.6%)으로 증가

- 상용근로자는 34.9%(1990년) → 42.5%(2010년), 임시근로자는 25.1%(1990년) → 24.6%(2010년), 일용근로자는 12.0%(1990년) → 8.5%(2010년)
- 비임금근로자는 1990년 1,242천명(28.1%) → 2010년 1,203천명(24.4%)으로 감소
 - 자영업주는 22.2%(1990년) → 20.8%(2010년), 무급가족종사자는 5.8%(1990년) → 3.6%(2010년)
-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비율을 보면 서울은 33.1%로 전국평균 28.9%보다 높음

□ 학력별 고용구조

- 전국적으로 고졸이하의 취업자는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대졸이상의 취업자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2010년 현재 서울의 취업자 중 대졸 이상의 비중은 46.6%로 1990년에 비해 25%p 증가
 - 이 중 대학교졸이상인 17.5%(1990) → 35.2%(2010)로 크게 증가
 - 반면에 고졸이하 비중은 78.4%(1990) → 53.4%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취업자의 절반이상이 고졸이하로 유지되고 있음

4. 서울시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전망

□ 산업별 취업자 전망

- 서울지역 인력수요 전망결과, 전체 취업자 수는 4,936천명(2010년) → 5,055천명(2020년)으로 연평균 0.2%씩 증가
 - 광공업은 2010년 533천명(10.8%) → 2020년에는 318천명(6.3%)으로 가장 큰 연평균 5.0%씩 감소
 - 농림어업 및 건설업 또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반면에 서비스업 중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의 취업자 수는 연평균 1.9%씩 증가해 2010년 대비 약 382천명이 증가한 2,276천명으로,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8.4%(2010년)에서 45.0%(2020년)로 6.7%p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전기·운수·창고·금융의 취업자수도 연평균 1.7%씩 증가하여 2020년에 933천명으로,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6.0%(2010년)에서 18.5%(2020년)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직업별 취업자 전망

- 2010년~2020년 기간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3.7%)', '사무 종사자(0.5%)', '단순노무 종사자(0.5%)' 등임
 - 반면,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6.7%)', '판매 종사자(2.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5%)' 등의 직업들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연평균 3.7%씩 증가해 취업자 수는 2010년 1,251천명(25.3%) → 2020년에는 1,797천명(35.6%)으로 증가할 전망
 - 이와 같은 전문가 직업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지식기반경제에서 전문인력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 사무 종사자는 연평균 0.5%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2010년 865천명(17.5%)→ 2020년에는 906천명(17.9%)으로 증가할 전망
- 가장 큰 연평균 감소율을 보이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는 동기간 중 연평균 6.7%의 감소율을 기록해 2020년에는 2010년 대비 234천명이 감소할 전망
- 이상과 같이 향후 2020년까지 서울시 취업자 수의 증가는 전문직 및 관련 종사자에서 높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산업별 전망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지식에 기반을 둔 전문기술과 국제적인 개방에 대응한 서비스분야의 전문 인력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2012년 말까지 서울시에서는 100개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28,163명의 인력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예정임
 - 직접적인 인력유출의 규모는 28,163명에 이르며, 이는 2010년 서울시 취업자 4,936천명의 약 0.6%에 해당
 - 해당 인력유출에 따라 서울시 취업자 전망치는 2015년에는 4,929천명, 2020년에는 5,027천명으로 전망치가 감소해야 할 것임

5. 결론

- 본 연구는 현재 이용가능한 지역단위 노동 기초통계의 분석을 통하여 서울시 주요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 및 고용에 관한 추이를 살펴봄
 - 또한 한걸음 더 나아가 향후 서울시의 산업별·직업별 인력

- 전망을 통하여 향후 서울시가 고용정책을 수립하거나 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필요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 산업 특성 및 지역의 전략산업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함
 - 일반적인 훈련보다는 산업적 특성 예컨대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서울시의 대표적 지역연고 사업인 봉제의복과 인쇄 및 출판 등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주민 특성을 반영한 직업훈련과 고용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현재 제공되고 있는 획일적인 훈련 프로그램 보다는 수요자가 취업에 필요하여 수강한 경우에 이를 지원해 주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 있음
 - 또한 서울지역의 인구 특성은 청년층이 많으며, 특히 청년층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직업훈련 정책이 필요함
-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한 중·고령자에 대한 고용정책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이를 위해 퇴직연령 연장, 노동유연성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가 우선 필요
 -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고령자들에 적합한 돌봄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
- 현재 서울시 서비스업은 경제 내 비중과 그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서비스업의 고용창출력을 배가하면서 질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
 -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달리 매우 이질적이고 복잡다기한 특성을 지닌 업종들의 조합이므로 동시다발적으로 고용문제를 접근하기보다는 업종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략 수립이 필요
- 경기침체와 고용사정 악화로 일자리가 최대의 민생과제로 급

부상하면서 경기변화에 대한 새로운 고용정책이 필요

- 새로운 일자리 창출방안은 단기적인 일자리 공급 대신 도시 환경과 도시문화를 발전시키고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분야에 고용정책을 집중하므로 당면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과 고령화 시대에 따른 복지 및 노동정책 과제를 해결하는 일자리 개발로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음

o 기존 대부분의 인력수급 전망연구에서는 국가차원의 수급전망을 실시하고 있고,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인력수급 전망 모형은 전무한 실정임

- 지역별 수급전망은 총량전망과의 연계성을 토대로 하여 해당지역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하여 보다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우선 인력수급 총량전망을 실시하거나 기존의 총량전망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수급전망을 실시해야 함

o 또한, 서울시 실정에 적합한 전망모형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 향후 서울시 실정에 적합한 전망모형의 개발은 기존 국가차원의 인력수급전망모형을 기본토대로 삼아, 전망단계별로 필요한 기초통계자료의 구축여부와 서울시 고용구조를 감안한 서울시 실정에 적합한 인력수급 전망모형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함

o 또한, 현재 광역권별로 실시되고 있는 인력수급전망을 좀 더 세부화하여 시도별 특성을 고려한 시도별 인력수급전망을 실시하여야 함

- 수도권의 산업별 부가가치 및 고용구조를 살펴보면 지역별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어 이들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인력수급전망을 위해서는 시도별로 세분화된 인력수급전망이 실시되어야 함

제1장 서론

21세기 지식기반 사회 및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이행하면서 고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서구 선진국에서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요인으로서 고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용정책의 수립 및 적용 등에 있어서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고용정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고용현황파악을 토대로 향후 예상되는 노동수요와 공급을 감안한 인력수급전망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신뢰성 높은 인력수급전망을 실시하기 위한 인력수급전망에 필요한 기초통계 부족, 분류체계 미정립 등 인력수급전망 관련 인프라 체계 구축의 미비로 고용정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요인하에서도 국가차원의 총량전망은 거시적 차원의 다양한 국가통계가 존재하는 등 기본적인 통계인프라가 구축되고, 정부의 고용정책수립을 위한 총량모형 개발 연구를 통해 국가전체의 인력수급전망을 도출하는 전망체계가 구축된다.

그러나, 광역지역별 고용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총량전망에 비해 좀 더 세부적인 기초통계가 요구되지만 관련된 기초통계인프라의 구축이 미비한 실정, 인력수급 전망에 필요한 현황 파악은 미흡한 실정이어서,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는 광역지역별 고용정책 수립에 적합한 인력수급전망에 앞서서 광역지역별 노동시장 현황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해 나갈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고용정책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체계의 구축과 더불어 사전적으로 노동시장의 현황분석이 필수적이다.

특히, 광역지역별 고용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광역지역별 고용정책 수립에 적합한 인력수급전망과 더불어 광역지역별 노동시장 현황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광역지역별 중 서울시는 2010년 현재 전국인구(5,051만명)의 20.4%인 1,031만명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으며, 취업자의 경우도 2010년 현재 전국 취업자(23,829천명)의 20.7%(4,936천명)를 차지하는 광역지역이며, 향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고용정책수립의 기초자료가 될 신뢰성 높은 인력수급 전망 작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노동시장 구조 및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제2장 서울시 산업구조

제1절 세계속의 서울시¹⁾

먼저 서울시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의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세계속의 서울시 위상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은 인구나 경제규모 측면에서 세계 주요 대도시 중의 하나이다. PriceWaterhouseCoopers의 조사에서 2005년 구매력평가 조정 GDP 기준 세계 30대 대도시 중 서울은 20위를 차지하였고 이들 30개 도시 중 인구는 11위로 나타났다. 참고로 1위는 동경이고 2위 뉴욕, 3위 LA, 4위 시카고, 5위 파리, 6위 런던, 7위 오사카-코베 순이다. 그러나 서울은 세계도시 순위나 OECD의 도시경쟁력 순위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예컨대 Globalization and World Cities(GaWC) Research Group and Network의 연구(Beaverstock-Taylor-Smith 19993)는 세계 주요도시들을 Alpha 세계도시, Beta 세계도시, Gamma 세계도시 등 3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최상위 Alpha급에는 런던, 파리, 뉴욕, 동경, 시카고, 프랑크푸르트, 홍콩, LA, 밀라노, 싱가포르 등이 포함되었다. 서울은 샌프란시스코, 시드니, 토론토, 취리히, 브뤼셀, 마드리드, 멕시코시티, 상파울로에 이어 모스크바와 함께 Beta급 도시 중 최하위로 평가되었다. 보다 최근 연구인 Taylor(2005)는 경제적(고급생산자서비스, Fortune 500대 기업 소재 등), 문화적(미디어, 건축 등), 정치적(UN 기구, 외국 공관, 지방자치단체 세계 기구 등), 사회적 측면(NGO, 과학부문 연구 협력 등) 지구화 영역별 지표들을 토대로 선도적 세계도시(leading world cities)를 선정하였다. 상위15개 도시는 런던, 뉴욕, 파리, 홍콩, 동경, 워싱턴, LA, 싱가포르,

1) 김경환(2008), 「세계도시 서울」, 서울경제 34호, pp3-9. 참조

방콕, 브뤼셀, 제네바,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시드니, 토론토 등이었다. 서울은 순위에 들어 있지 않다.

도시 경쟁력 순위에 관한 OECD(2007)4)의 최근 평가에서는 OECD 회원국 주요 도시들을 최상위그룹인 월드 스타(고도로 특화된 기능들이 세계 전역에 연결되어 있으며 시민들의 1인당 소득이 OECD 평균치보다 높은 도시), 다음으로 내셔널 스타(1인당 소득이 국가평균보다 높고 쾌적한 환경으로 국가경제 성장 엔진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 그리고 최하위그룹인 전환기 도시(1인당 소득이 국가평균보다 낮은 도시)로 구분하였다. 월드스타급 도시에는 뉴욕, 런던, 동경, 뮌헨, 밀라노가 선정되었고 로마, 마드리드, 시카고, 부다페스트 등은 내셔널스타급으로 분류되었다. 서울은 베를린, 맨체스터, 몬트리올 등과 함께 전환기 도시로 평가되었다. 서울이 낮게 평가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서울의 1인당 도시총생산(GRDP)이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데 있다.

서울은 세계 주요도시와의 연계성에 있어서 비교적 높은 지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물류 수송의 경우 2006년 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발표 국제 항공화물 운송량 순위에서 인천공항이 홍콩공항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국제선 승객 수송인원 순위에서는 세계10대 공항에 들지 못했다. 참고로 국제선 승객 수송인원이 가장 많은 공항은 런던 허드로공항이고 이어 파리,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순이다. 아시아권에서는 홍콩이 5위, 동경이 6위, 싱가포르가 8위, 그리고 방콕이 9위를 차지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계도시의 특징 중의 하나는 고등교육의 중심지라는 것이다. 대학교육은 국제교역이 가능한 중요한 서비스이며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도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UNESCO의 2001/02년 세계 유학생 분포 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전체 유학생의 27%를 차지하였고 영국이 13%, 독일 13%, 프랑스 8%, 호주 6%, 러시아 및 일본 4% 등의 순이었다. 점유율 상위 14개국이 전체 유학생의 8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의 점유율은 1% 미만이었다. 우리나라 혹은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 유학생 수는 전체 학생 수에 비해 미미하다. 한편 영국의 the Times 2007년도

세계 대학 평가에 따르면 상위 100대 대학교 중 미국 37개, 영국 19개, 호주 8개, 캐나다 6개 등 4개국이 60개를 차지하였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4개, 중국 3개, 홍콩 3개, 싱가포르가 2개,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으로는 서울대학교가 유일하게 포함되었다. 이들 100개 대학교 중 아시아권 주요 대학은 홍콩 3, 동경 2, 북경 2, 싱가포르 2, 오사카 1, 교토 1, 상해 1, 서울 1개 등 교토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세계 400위 안에 드는 우리나라 대학은 모두 7개교이며 이 중 5개교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서울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평가는 낮다. Mercer Human Resource Consulting(MHRC)사는 정치 및 사회적 환경(정치적 안정성, 범죄율 등), 경제적 환경(환율규제, 은행서비스 등), 사회문화적 환경(점열, 개인자유에 대한 제약 등), 보건위생 환경(의료서비스, 전염병, 대기 오염 등), 교육(국제학교 수 등), 레크리에이션(식당, 극장, 영화관, 스포츠, 여가 등), 공공서비스와 교통(전기, 수도, 대중교통, 교통혼잡 등), 소비재(생활필수품, 승용차 등), 주택(주택, 가전제품, 가구 등), 그리고 자연환경(기후, 자연재해 등) 등 10개 영역의 39개 지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삶의 질 지수를 매년 조사한다. MHRC사의 2007년 세계 215개 주요 도시 삶의 질 순위에서 서울은 2006년보다 순위가 2단계 높아졌지만 87위에 그쳤다. 상위 도시들이 대부분 스위스(1위 취리히, 2위 제네바, 9위 베른), 캐나다(밴쿠버 3위), 독일(뉘셀도르프 5위, 프랑크푸르트 7위, 뮌헨 8위), 오세아니아(오클랜드 5위, 시드니 9위) 등에 위치해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가 34위로 가장 높았으며 일본이 동경(38위), 요코하마(38위) 등 모두 9개 도시가 100위권 내에 들었다. 이밖에 팔라뎀푸르(75위), 타이베이(83위)를 차지하였고 중국 도시로는 상해가 유일하게 100위를 기록하였다.

세계도시로서 서울의 약점 중의 하나는 비싼 물가이다. MHRC사는 주택, 교통, 식품, 의복, 소비재, 여가 등 200개 품목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계 주요도시의 생활비를 비교 조사한다. 2007년 세계 143개 도시 생활비 조사에 따르면 뉴욕의 생활비를 100으로 할 때 서울의 생활비는 122.4로 모스크바(134.4), 런던 (126.3)에 이어 세계 3위로 평가되었다. 아

시아권 주요 도시로는 동경이 4위(122.1), 홍콩이 5위(119.4), 오사카가 8위(108.8) 싱가포르를 14위(100.4)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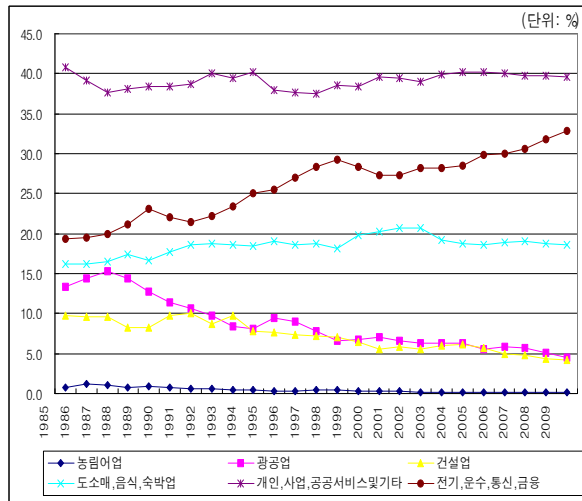
이밖에 서울은 영어 소통 가능성, 외국인 비중, 국제기구 및 다국적 기업 본사 또는 지역본부 입지 등 국제화 지표에서 아시아 주요도시들에 비해 떨어진다.

제2절 서울시 산업구조의 특징 및 변화

서울은 우리나라 최대의 인구 밀집 지역이면서 동시에 산업생산기반의 집중(2009년 GRDP의 23.8%)되어 있는 지역이다. 서울시 산업구조의 변화를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추이를 통해 살펴보면, 2009년 서울시의 산업구성은 개인·사업·공공서비스 및 기타가 39.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이 32.9%, 도소매·음식숙박업이 18.6%, 광공업 4.5%, 건설업 4.2%, 농림어업이 0.2%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산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농림어업, 건설업 및 광공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1985년 19.4%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32.9%에 이르고 있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은 2000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 20여 년간 18%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사업·공공서비스 및 기타는 4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II-1] 서울시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포털

서울시 산업구조를 산업별로 보다 세분화하면, 2009년도 기준 서비스업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의 비중이 16.8%로 가장 높고, 도매 및 소매업이 15.8%, 사업서비스업이 11.2%, 정보 및 통신업이 11.1%,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10.9%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가운데에서는 생활관련형 산업의 비중이 2.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중이 증가하는 산업으로는 정보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반면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산업은 농림어업, 생활관련형 제조업, 건설업, 기타서비스업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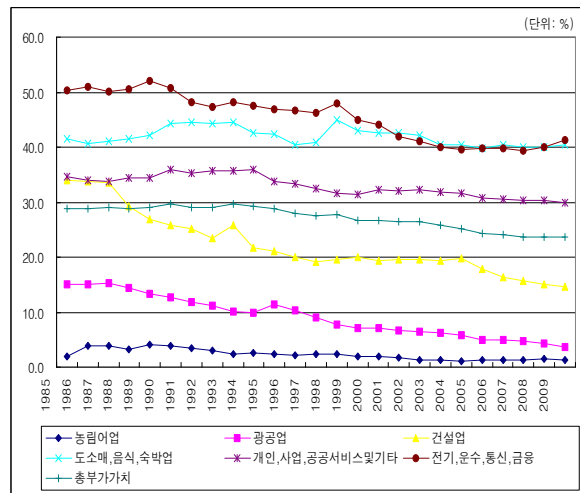
<표 II-2> 서울시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추이

	1990	1995	2000	2005	2009
총부가가치(기초가격)	100	100	100	100	100
농림어업	0.7	0.4	0.3	0.2	0.2
광업	0.0	0.0	0.0	0.0	0.0
제조업	11.4	9.5	7.0	5.6	4.5
기초소재형	1.2	1.7	0.9	0.8	0.6
가공조립형	1.5	2.0	2.3	1.7	1.2
생활관련형	8.6	5.8	3.8	3.1	2.7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0.5	0.8	1.0	1.0	0.8
건설업	9.7	7.6	5.6	5.7	4.2
도매및소매업	15.1	15.1	17.1	15.8	15.8
운수업	7.1	6.9	5.3	4.3	4.2
숙박및음식점업	2.6	4.0	3.1	2.9	2.8
정보및통신업	3.8	5.4	8.7	10.0	11.1
금융및보험업	10.7	12.4	12.2	14.5	16.8
부동산업및임대업	11.2	12.2	12.2	11.8	10.9
사업서비스업	9.1	9.2	10.4	11.3	11.2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4.7	4.7	4.7	4.8	4.7
교육서비스업	5.7	5.6	5.5	5.7	5.8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3.1	2.6	3.0	3.2	3.8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0.8	0.9	1.4	1.4	1.4
기타서비스업	3.8	2.8	2.4	2.0	1.9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포털

전국 대비 서울시의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전국 대비 서울의 지역내총생산(GDRP) 비중은 23.8%이며, 부가가치는 전국 대비 23.7%로 국내 총생산의 약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전국 대비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전기·운수·통신·금융업으로 4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이 40.4%, 개인·사업·공공서비스 및 기타가 29.9%이다. 반면 건설업(14.6%), 광공업(3.7%), 농림어업(1.3%)은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전국 대비 비중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II-2] 서울시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추이(전국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포털

전국 대비 산업별 비중을 보다 세분화하면, 서울시는 정보 및 통신업(56.6%), 사업서비스업(56.2%), 금융 및 보험업(53.1%) 등에서 전국 부가가치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반면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8.3%), 광공업(5.0%), 농림어업(1.3%)은 비중이 낮은 산업들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서울시의 산업별 취업자 비중을 통해 산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림어업과 광공업의 비중은 1990년대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며, 전기·운수·통신·금융업과 개인·사업·공공서비스 및 기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고 있는 산업은 광공업과 개인·사업·공공서비스 및 기타로 광공업은 1989년 전체 취업자의 32.0%이던 것이 2010년 10.8%로 크게 하락한 반면, 개인·사업·공공서비스 및 기타는 1989년 26.1%에서 2010년 38.4%로 크게 상승하였다.

〈표 II-3〉 서울시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추이(전국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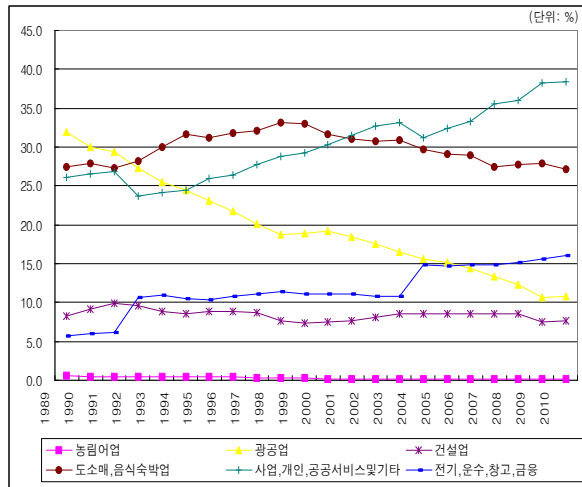
	1990	1995	2000	2005	2009
총부가가치(기초가격)	29.7	28.8	26.7	24.3	23.7
농림어업	4.0	2.3	2.0	1.3	1.3
광업	0.3	0.8	1.7	1.7	1.2
제조업	12.9	11.4	7.2	4.9	3.8
기초소재형	3.6	5.0	2.3	2.0	1.5
가공조립형	5.6	6.5	5.4	2.9	1.8
생활관련형	33.1	32.9	26.2	24.3	22.6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11.6	12.2	13.9	10.6	8.3
건설업	25.7	21.1	19.4	17.9	14.6
도매및소매업	48.0	43.4	45.1	42.2	42.9
운수업	42.8	40.1	30.8	22.9	22.7
숙박및음식점업	30.7	39.4	32.6	30.2	30.2
정보및통신업	67.3	65.6	62.6	53.7	56.6
금융및보험업	64.2	54.9	52.5	51.3	53.1
부동산업및임대업	46.1	41.0	37.0	35.3	34.2
사업서비스업	67.1	59.6	59.0	57.4	56.2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18.9	20.2	18.1	18.1	17.6
교육서비스업	24.2	25.1	25.2	23.0	23.5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37.6	27.7	26.1	25.7	25.2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40.2	32.1	36.0	28.1	26.1
기타서비스업	36.3	30.1	27.1	21.6	20.2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포털

앞서 살펴본 부가가치 구성과 비교해 보면, 부가가치 구성에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던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취업자 구성에서는 완만한 상승에 그치고 있으며, 부가가치 구성에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던 개인·사업·공공서비스 및 기타는 취업자 비중에서는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 비중에서 1980년대 후반 이후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던 광공업은 취업자 비중에서는 큰 폭의 하락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 산업의 기술적 특성(또는 생산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산과 고용 사이의 관계(취업계수, 고용탄력성)가 산업별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공공서비스 및 기타는 고용창출력이 높은 산업(생산증가에 비해 고용증가 규모가 더 큼)이며, 광공업은 높은 부가가치 비중에도 불구하고 빠른 생산성 상승으로 인해 고용흡수력은 현저히 낮은 산업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부가가치 증가에 비해 고용증가 규모가 적은 산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한고원,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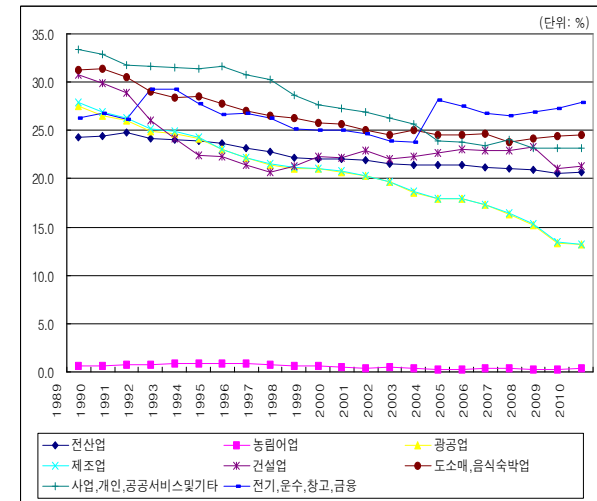
[그림 II-3] 서울시 산업별 취업자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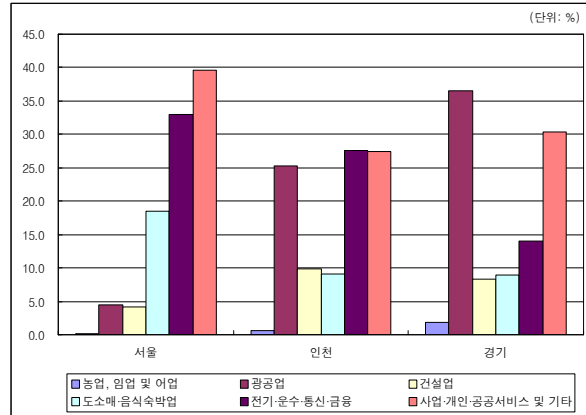
서울의 산업별 취업자가 해당 산업의 전국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국 취업자의 20.7%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이 27.9%로 가장 높고, 도소매·음식숙박업이 24.5%, 개인·사업·공공서비스 및 기타가 23.2%, 건설업이 21.3%로 전산업의 전국비중에 비해 높은 반면, 광공업(13.2%), 농림어업(0.4%)은 전국비중에 비해 낮다. 지난 20여 년간의 변화추이를 보면, 서울은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전국 대비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4] 서울시 산업별 취업자 비중 추이(전국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포털

[그림 II-5] 수도권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2009년)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포털

〈표 II-4〉 수도권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2009년)

	서울	인천	경기도
총부가가치(기초가격)	100	100	100
농림어업	0.2	0.6	1.8
광업	0.0	0.1	0.1
제조업	4.5	25.2	36.4
기초소재형	0.6	8.9	7.9
가공조립형	1.2	13.2	25.3
생활관련형	2.7	3.0	3.3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0.8	4.6	1.9
건설업	4.2	9.9	8.3
도매및소매업	15.8	7.1	6.9
운수업	4.2	15.1	2.9
숙박및음식점업	2.8	2.0	2.1
정보및통신업	11.1	2.8	4.4
금융및보험업	16.8	5.1	4.8
부동산업및임대업	10.9	6.9	8.6
사업서비스업	11.2	2.2	3.1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4.7	4.9	5.5
교육서비스업	5.8	5.4	5.7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3.8	3.8	3.3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4	1.0	1.6
기타서비스업	1.9	3.3	2.5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포털

2009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부가가치 비중을 비교해보면, 제조업은 인천(25.2%)과 경기 지역(36.4%)의 비중이 높고 서울시(4.5%)는 이에 비해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또한 인천(9.9%), 경기(8.3%) 및 서울(4.2%)로 나타나 인천 및 경기지역이 서울시에 비해 건설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기·운수·통신·금융은 서울(32.9%), 인천(27.6%), 경기(14.0%),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는 서울(39.6%), 경기(30.4%), 인천(27.4%)로 서울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는 타지역의 비해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사업서비스업, 정보 및 통신업 등의 부가가치 비중이 높고, 인천은 항만도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운수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은 제조업 중 가공조립형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산업별 부가가치 구성은 서울, 인천 및 경기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 서울시 취업구조의 특성 및 변화

제1절 우리나라 취업구조의 특성 및 변화

가. 산업별 취업구조

<표 III-1>에는 1963년부터 2010년까지의 산업별 취업자 구조가 나타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1차 산업 취업자 비중의 급격한 하락과 2차 및 3차 산업 취업자 비중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1차 산업인 농림·어업의 전체 취업자 대비 구성비는 1963년 63%에서 2010년에는 6.6%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2차 산업에서 광공업은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나타내는 데 반해 제조업은 1963년 7.9%에서 1990년 27.2%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0년에는 16.9%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 산업의 취업자 비중은 1963년 28.3%에서 2009년 76.4%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이 중 도소매·음식·숙박업이 23% 수준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III-1>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단위: %)

연도	농림·어업	광공업		S.O.C 및 기타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963	63.0	8.7	7.9	28.3	2.5	-	-	-
1970	50.4	14.3	13.2	35.3	2.9	-	-	-
1980	34.0	22.5	21.6	43.5	6.2	19.2	4.5	2.4
1990	17.9	27.6	27.2	54.5	7.4	21.8	5.1	5.2
2000	10.6	20.4	20.3	69.0	7.5	27.2	6.0	10.0
2005	7.9	18.6	18.5	73.1	7.9	25.4	6.3	33.6
2010	6.6	17.0	16.9	76.4	7.4	23.0	8.5	37.6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포털

이러한 취업구조 변화는 우리의 산업구조가 농업, 제조업 등과 같은 물질적 재화중심(hard)에서 정보, 지식, 서비스와 같은 비물질적 재화중심(soft)의 산업구조로 이행되는 경제의 소프트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앞으로 통신, 광고, 전자상거래, 문화산업(영화, 음반, 게임), 금융, 디자인 등과 같은 제조업 지원서비스업 혹은 지식기반서비스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의 소프트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산업별 취업구조 변화는 향후 전개될 직업세계에 대한 전망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진로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경제의 소프트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역량과 자질을 가진 우수인력을 양성·배분·활용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구체적으로 대학의 지식혁신역량 제고,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학 유도,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주도할 서비스 인력양성, 우수 해외인력 유치 등을 통해 원활한 신규인력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

다.

둘째로, 경제의 소프트화로 촉발될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예상되는 대규모의 인력조정 등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대부분 중고령층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조정 대상자들에게 평생직업을 제공하기 위한 직업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들의 직업능력을 확충하는 것은 인구감소 등 노동공급부족이 심화될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셋째로, 국민의 직업진로설계에 있어서 제조업 중심의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경제의 서비스화에 대응하는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의 필요성이다. 부가가치의 원천이 육체적 능력의 투입확대에서 창의력과 신선한 아이디어와 같은 지력이 중요해지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의 확장과 갱신이 필요하다. 미래 직업세계의 변화방향에 대한 정보와 예측, 그리고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기초한 진로설계를 지속적으로 추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나. 직업별 취업구조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는 숙련별 취업구조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를 살펴보면, 지난 40년간 전문기술직 종사자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이것은 한국경제가 단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부터 지식, 기술, 정보 등의 중요성이 높은 지식정보산업으로 이행하여 왔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표 III-2〉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단위: %)

연 도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관련종사자	판매종사자	서비스직종사자	농림수산업종사자	생산운수장비운전, 단순노무
1963	3.3	-	3.5	10.1	5.2	62.9	15.0
1970	4.8	-	6.0	12.4	6.4	50.2	20.2
1980	4.0	1.3	9.3	14.5	7.9	34.0	29.0
1990	7.2	1.5	13.0	14.5	11.2	17.8	34.8
2000	16.4	2.2	11.9	13.4	12.6	10.0	33.5
2005	18.4	2.5	14.3	11.7	13.0	7.5	32.7
2010	19.2	2.4	15.7	12.3	10.2	6.0	34.2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포털

〈표 I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기술 및 관련종사자 그룹은 1963년 3.3%를 차지하였으나 2010년에는 19.2%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사무관련 종사자 그룹 역시 1963년 3.5%에서 2010년 15.7%로 4배 이상 상승하여 고도경제성장에 따라 이 분야를 중심으로 취업자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서비스직 종사자와 생산·운수 장비운전자, 단순노무자도 지난 40년간 2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판매종사자는 꾸준히 10%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경우는 1963년에는 전체 종사자 중 6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에는 6.0%로 떨어졌다. 이것은 전체산업에서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줄어든 산업구조의 변화 탓도 있지만, 기계화, 자동화 등 노동절약적 기술 진보로 생산단위당 노동투입의 감소를 가져온 새로운 생산방식의 도입에 기인하였다. 지식정보화가 진전될수록 결국 전문·기술직을 중심으

로 한 지식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Kelly(1985)는 골드칼라(gold collar)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이전의 블루칼라(육체 노동자), 화이트칼라(사무직 노동자)와 달리 두뇌를 사용하여 일하는 새로운 계층의 광범한 등장을 예견한 바 있다.²⁾ 21세기 국가 및 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는 조직규모나 인원수와 같은 수량적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수인재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질적인 우위에 있다. 골드칼라가 미래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적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수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노력과 더불어 키운 인재를 보유하고 활용하기 위한 국가 및 조직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다자 간 무역협정,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상품시장의 개방에서 노동, 자본 등 요소시장으로 개방의 폭과 속도가 확장되고 있는 추세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을 갖는 한국경제가 해외아웃소싱(off-shoring)의 확대와 같은 국제 분업체계의 고도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에서 필요한 숙련을 지속적으로 개발, 향상시켜 고숙련-고생산성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하여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외국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일자리를 확대해나가는 전략이 요청된다.

경제가 선진화될수록 단순기능인력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전문기술인력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대체적인 추세이다. 물론,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됨에 따라 단순기능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그들이 수행하는 직무의 숙련내용은 크게 변모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고급두뇌전략과 더불어 경제의 서비스화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저기능인력의 고숙련화, 숙련수요의 조기인식을 통한 숙련 불일치 해소 등과 같은 인적자원개발 노력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2) 일본 이코노미스트지(1996.6월호)는 연구과학자, 설계기술자, 엔지니어, 은행가, 투자고문, 변호사, 컨설턴트, 회계사 등을 골드칼라의 대표적 직종으로 소개한 바 있으며 U.S. World News and Report(1999.11월호)지에서도 21세기 유망직업으로 두뇌를 활용하여 높은 시장가치를 창출하는 업무를 선정할 바 있다.

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구조

경제개발 이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규모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상용 및 임시+일용)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비임금근로자(고용+자영+가족종사자)의 비중은 감소하여 왔다.

<표 II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3년에는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합친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전체의 68.4%를 차지하였으나, 2010년에는 이러한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29.2%로 크게 축소되었다. 이에 반해, 상용 및 임시 종사자와 일용직 종사자로 이루어진 임금근로자의 경우, 1963년에 전체 취업자 중 31.5%를 차지하였으나 2010년에 들어서는 71.2%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특히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1963년 31.2%에서 2010년 5.7%로 크게 감소했는데, 이것은 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농림어업 등 1차 산업의 비중이 축소된 반면 개인중심의 3차 산업이 급성장하는 산업구조의 전환에 따른 현상이었다.

〈표 III-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구성비 (단위: %)

연도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상용	임시	일용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1963		18.8	12.7	37.2	31.2
1970		28.4	10.6	34.2	26.9
1980		37.7	9.5	34.0	18.8
1990	32.8	17.5	10.2	28.1	11.4
2000	30.2	21.8	11.1	27.7	9.1
2005	34.6	22.1	9.7	27.0	6.6
2010	42.3	21.3	7.6	23.5	5.3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포털

OECD 선진국과 비교할 때,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구성에서 관찰되는 특징은 자영업주(=고용주+자영자) 비율이 거의 30%대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반면, 임금근로자 비중은 낮다는 점이다. 류재우 외(1999)는 OECD국가들을 포함한 36개국을 대상으로 1인당 GDP와 자영업주 및 무급종사자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양자는 서로 음의 관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것은 우리의 경제발전 수준에 비추어 현재 자영업주 비율이 과도하게 높으며, 향후 경제가 성장할수록 임금노동의 비중이 상승하고 비임금노동의 비중이 하락할 것임을 시사한다.

전용석·김두순(2004)은 여자, 중고령층, 저학력층 등 이른바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이 영세한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들이 임금근로를 포함한 양질의 일자리로 전직하거나 창업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훈련 및 취업알선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무분별한 창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

여 창업 희망자 등이 이른바 '준비된 창업'과 안정적인 사업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성도 있다.

취업자의 1/3 정도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자영업 부문이 노동시장 정책의 주변적 위치에 머무를 수는 없으며, 향후 예상되는 자영업의 비중축소에 대비하여 고용, 실업, 훈련 관련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높다. 특히 퇴직자 전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퇴직 이전에 익힌 기술 및 지식을 활용한 창업을 유도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라. 최근 직업세계 변화의 특징³⁾

1) 비정규직의 확대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급진전되면서 비정규근로자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들어 비정규직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세계 주요국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지난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실업대책과 더불어 노동비용 절감을 위한 기업들의 고용조정이 가속화되면서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실제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에 관해서는 정부부처와 기업, 그리고 노동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정의 및 분류방식은 나라마다 다양하지만, 크게 종사상 지위에 따른 전통적인 접근방법과 고용형태에 따른 최근의 접근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장기 시계열이 존재하는 전통적 접근방법에 따라 실태를 살펴본다.⁴⁾ 전체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

3) 오호영 외(2007). 「KRIVET 직업전망지표개발」, 인용.

4) 전통적인 접근방법은 비정규직의 범위를 경제활동인구 본조사에서 종사상 지위에 따라 임금근로자 중 상용을 제외한 임시 및 일용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1989년부터 시계열 자료가 존재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비정규직을 엄밀하게 정의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고용형태에 따라 비정규직의 범위를 설정한 최근의 접근방법은 2002년 정부(노동정책위)에 의해 합의된 기준으로 전통적인 접근방법이 지니는 한계점을 해소하였으나, 관련 자료가 2001년부터 존재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국가별 비정규 근로에 대한 정의

은 1995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여왔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00년 이후 비정규직의 구성비가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1990년대 초반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이 취업하기를 선호하는 소위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대졸자가 주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30대 대기업집단이나 공기업, 금융관련 기업 등과 같은 '괜찮은 일자리'는 1997~2002년간 32만6천개나 줄어들었다. 이렇게 일자리가 줄어드는 가운데, 경력직 채용 경향이 확산되면서, 괜찮은 일자리의 청년층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1997년 10월에 청년층의 괜찮은 일자리 점유율은 37.1%였는데, 2002년 10월에는 그 비율이 25.0%로 크게 줄었다.⁵⁾ 비정규직은 고용안정성, 임금수준, 부가급여, 교육훈련, 승진 등의 측면에서 정규직에 비해 크게 불리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증가는 일자리의 질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대졸자의 수는 증가한 반면, 대졸자의 구직 눈높이에 맞는 '괜찮은 일자리'가 감소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대졸자 노동시장이 더 이상 동질적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일정한 기준에 의해 대졸자 노동시장의 분해, 혹은 양극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역으로 대학교육에 피드백 효과(feedback effect)를 가지게 될 것이다.

2) 청년층 실업률의 상승

우리나라의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996년 4.7% 수준에서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12.2%로 치솟았다가 2009년 8.1%로 낮아져 전체 실업률과 비교할 경우 약 2~2.5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⁶⁾ 이것은 OECD 국

및 분류방식은 장흥근(2001) 참조)

5) 다만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정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경제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IMF 구조조정 이후 벤처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의 선호도가 높아졌으며, 이 부문의 고용 비중이 커졌다. 이 부문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괜찮은 일자리의 감소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6) OECD 국가들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청년층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가들과 비교하여 결코 높은 수준이라 볼 수 없으나, 다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청년실업률이 단기간에 급증함으로써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청년실업의 심각성은 사회전반의 고학력화 추세와 맞물려 고학력일수록 실업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있다. 청년실업자 중에서 고졸 이하 실업자의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나,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8년 25.6%에 불과했던 청년층 중 대졸 이상 실업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47.4%에 달하였다. 특히 대학 진학률은 1980년대 초에 한 차례 급격히 상승했다가 상당기간 정체하고 난 후,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⁷⁾

인력의 공급측면에서 급격한 고학력화는 일자리에 대한 청년층의 기대수준을 높이게 될 것이며, 인력의 수요측면에서 직종구조의 고도화 속도가 이보다 느릴 경우 하위직종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청년실업자가 늘어나는 수급 불일치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려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당분간 고학력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유발효과가 적은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어 직종고도화 속도가 고학력화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김석진, 2004).

대졸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은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가 됨으로써 대학재학생의 취업준비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졸업생의 취업률이 낮은 대학일수록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직업교육에 보다 치중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진로지도, 취업지원 등 학생들이 직업세계로 보다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도 증가할 것이다.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해당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는 것은 학교를 홍보하고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다. 특히 청년층 노동시장이 긴박해지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감안할 때 취업률은 대학선

7) 김석진(2004)에 따르면 이러한 급격한 학력구조의 고도화는 약 10년 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점차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 대학이 해당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직업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과 지식의 함양이 필요하며, 이것은 대학교육이 순수학문 중심의 이론교육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과 같이 노동시장과 높은 연계성을 가지면서 발전하는 새로운 대학경쟁구도를 형성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3) 경력직 위주의 채용관행

청년층 구직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민간기업의 채용관행이 경력직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음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 특히 무엇보다 기업의 경력직 채용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30대 재벌기업, 공기업, 금융산업 등 주요 기업집단의 경우 경력자 채용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어 1996년의 34.8%에서 2002년에는 81.8%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지식기반경제의 진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지식과 기술의 급속한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따라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가는 한편으로 노동이동이 빈번해지게 된다. 노동이동이 빈번해지면 전통적인 경제이론에 의할 경우 기업이 투자한 훈련비용을 충분히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직근로자의 능력향상에 투자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필요인력을 양성하기보다는 외부노동시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구매하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는 주장이 최근 들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이다.

기업에서 경력직 위주의 채용관행이 정착되고 있는 것은 대졸 신규구직자의 채용기회 감소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신규구직자 노동시장이 긴박(tight)하게 됨을 의미한다. 즉, 경력직 위주의 채용관행은 청년층 노동시장 신규진입자 혹은 진입예정자로 하여금 졸업장과 같은 간판보다는 실제 직무수행능력이 보다 중요하다는 신호가 될 것이다.

기업의 경력직 채용관행을 능력주의 인사정책의 확산으로 받아들이는다면, 이는 대학의 경쟁패러다임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 대학들이 인재의 선별(screening)에 과도하게 집중하여 신

입생선발에만 치중해오던 것에서 벗어나 학생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에 역점을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교육에서 탈피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과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학습욕구를 파악하여 그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4) 조기퇴직의 관행화

외환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연공급을 기본으로 하는 일본형 인사관리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었다. 연공급과 맥을 같이 하는 정년제는 1970년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는데, 일정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고용을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숙련형성과 근로자의 애사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미국식 성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인적자원 패러다임이 도입되면서 연공급과 정년제는 급속히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외환위기에 직면하여 각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량해고를 실시하였지만, 그것은 일과성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다. 즉, 고도 경제성장기에 확립되었던 전통적인 연공주의적 인적자원관리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인력운용의 경직성으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황수경(2004)은 연공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생산성과 임금격차가 과도하게 벌어짐으로써 기업들이 근로자의 연령이 40대 중반을 넘어서면 계속 고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조기퇴직 관행은 자료상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방하남 외(2005)가 한국노동패널(KLIPS) 2003년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50대 초반에 조직퇴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로부터 퇴직하는 평균연령은 53.8세, 여자 50.1세로 평균 52.3세에 퇴직한다.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퇴직이 노동시장에서 완전한 은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평균 14년간의 제2의 근로생애를 거쳐 60대 후반의 늦은 나이에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한

다.

그러나 중고령자에 대한 재취업 기회가 그리 많지 않고 근로생애를 통해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직종을 찾기는 더욱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기퇴직자들은 자영업, 하향취업 등으로 귀결된다. 조기퇴직의 일반화는 일류대학이 더 이상 평생직장을 보장해주지 않는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는 평생직업을 확보하기 위한 직업능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것이다.

이를 진로설계와 연계해 본다면, 우선 학과선택 단계에서는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에 기여하는 학과와 전공의 중요성이 부상하면서 특정 학교의 졸업장을 획득하기 위한 진로선택은 약화될 것이다. 다음으로 재학 중에는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충실하게 전공공부나 학교생활에 임함으로써 미래의 직업세계 진출에 대비하는 경향이 확산될 것이다. 따라서 조기퇴직의 일상화는 전공중심의 진로선택, 재학 중 직업능력의 개발에 보다 치중하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여 전반적으로 대학서열의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절 서울시 취업구조의 특성 및 변화 주이 분석

가. 인구의 구성 및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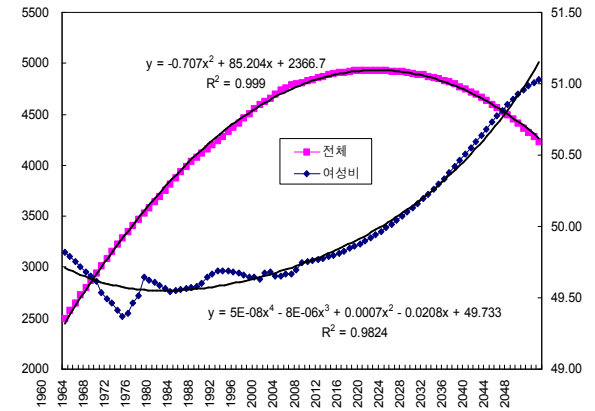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1967년에 3,000만 명을 넘었고 그 17년 후에 1,000만 명이 증가하여 1984년 4,000만 명을 상회하였다. 이후 인구의 증가추세는 둔화되어 1995년에 4,500만 명을 넘었고 2018년에는 4,943만 명으로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50년에는 4,234만 명으로 1988년 수준의 인구규모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1970년 이후 경제활동 기회가 늘어난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로 출산이 감소하여 인구성장률이 낮아지기 시작하였다. 1985년 이후에

는 연간 1% 내외까지 낮아졌으며, 1998년 IMF 경제위기로 인해 더욱 크게 낮아졌다. 2000년에 새천년의 개막으로 인구성장률 하락추세가 일시적으로 멈추었지만, 2002년 이후 인구성장률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2018년에는 0%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는 하락으로 반전되어, 총인구 규모가 감소하는 시대가 도래 할 전망이다. 총인구 규모의 감소는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성장률 둔화와 함께 인구수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데, 남아선호 사상의 영향은 여전히 힘을 발휘하여 2022년이 되어 서야 여성의 인구가 남자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III-1]에서 보듯이 여성의 비중은 전체인구의 50%를 넘는 2022년 이후에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II-1] 우리나라 인구규모 추계와 여성 비중
(단위: 만명, %)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포털

서울시 총인구는 2000년에 10,078천명에서 2030년에는 9,415천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여성인구의 성장률은 2000~2010년 사이에 연평균 0.12%, 2010~2020년에는 연평균 0.01% 등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남성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자 0~14세의 인구 증가율은 2000~2010년에는 -2.35%이고 2010~2020년에는 -1.48% 등으로 남자보다 낮은 한편으로 65세 이상의 증가율도 2000~2010년에 5.00%로 역시 남자보다 절대값이 낮다. 이에 따라 남녀 성비가 모든 연령층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생에서는 남아선호가 감소하여 여아의 출생이 늘어나고 남자의 평균수명도 빠르게 증가하여 성비가 균형에 이르기 때문이다.

〈표 III-4〉 서울시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
(단위: 천명, %)

	인구수				연평균 증가율		
	2000년	2010년	2020년	2030년	'00~'10	'10~'20	'20~'30
전체	10,078	10,039	9,896	9,415	-0.04	-0.14	-0.50
0 - 14세	1,870	1,447	1,238	1,046	-2.53	-1.55	-1.67
15 - 19세	818	638	435	417	-2.46	-3.76	-0.41
20 - 24세	961	654	588	433	-3.77	-1.05	-3.02
25 - 29세	1,138	967	714	485	-1.62	-2.98	-3.80
30 - 34세	948	945	665	598	-0.03	-3.45	-1.07
35 - 39세	858	918	852	633	0.68	-0.74	-2.94
40 - 44세	867	824	824	851	605	-0.51	0.33
45 - 49세	689	815	869	814	1.70	0.64	-0.66
50 - 54세	577	805	774	808	3.39	-0.39	0.43
55 - 59세	463	608	737	796	2.76	1.94	0.77
60 - 64세	351	476	700	679	3.08	3.93	-0.30
65세 이상	539	941	1,471	2,102	5.74	4.56	3.64
합계	5,076	4,974	4,824	4,509	-0.20	-0.31	-0.67
0 - 14세	987	751	638	538	-2.69	-1.61	-1.70
15 - 19세	425	336	225	215	-2.31	-3.95	-0.45
20 - 24세	480	330	297	218	-3.67	-1.04	-3.07
25 - 29세	589	475	365	243	-2.13	-2.60	-3.98
30 - 34세	499	479	338	303	-0.40	-3.43	-1.07
35 - 39세	431	471	415	321	0.88	-1.25	-2.54
40 - 44세	419	414	417	298	-0.11	0.07	-3.30
45 - 49세	336	400	434	387	1.76	0.82	-1.14
50 - 54세	286	387	382	389	3.06	-0.11	0.18
55 - 59세	236	292	354	390	2.14	1.94	0.98
60 - 64세	176	229	325	325	2.66	3.54	0.01
65세 이상	212	409	633	882	6.80	4.45	3.37
합계	5,003	5,065	5,072	4,906	0.12	0.01	-0.33
0 - 14세	883	696	600	508	-2.35	-1.48	-1.64
15 - 19세	393	301	210	202	-2.62	-3.54	-0.37
20 - 24세	481	324	291	215	-3.88	-1.07	-2.97
25 - 29세	549	491	349	241	-1.09	-3.36	-3.62
30 - 34세	450	466	327	294	0.37	-3.47	-1.06
35 - 39세	426	448	437	312	0.48	-0.23	-3.33
40 - 44세	449	410	434	307	-0.89	0.58	-3.41
45 - 49세	353	415	435	426	1.64	0.47	-0.19
50 - 54세	291	419	392	419	3.70	-0.65	0.66
55 - 59세	227	316	383	406	3.36	1.94	0.58
60 - 64세	175	247	375	354	3.49	4.28	-0.59
65세 이상	327	532	838	1,221	5.00	4.64	3.84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포털

나. 주요 노동시장 지표

서울의 주요 노동시장지표의 추이를 살펴보면,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는 2000년 8,015천명에서 2010년 8,384천명으로 연평균 0.5%씩 증가하였다. 이는 전국 생산가능인구의 동기간 증가율 1.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경제활동인구는 동기간 연평균 0.5%씩(전국은 1.1%)씩 증가하여 2010년 5,180천명이며, 이 가운데 취업자는 2010년 4,936천명으로 연평균 0.6%(전국은 1.2%)씩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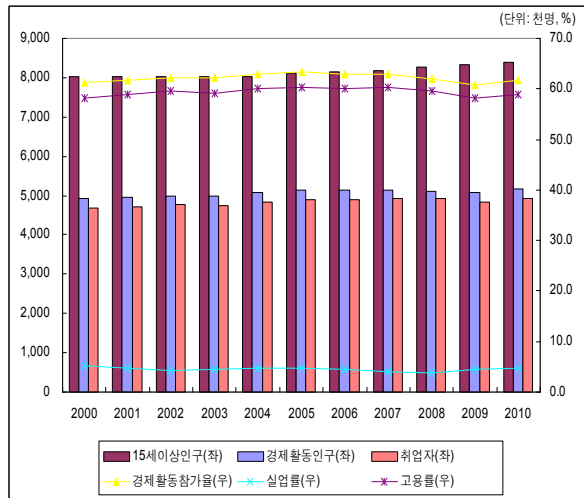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는 3,205천명(전국 비경제활동인구의 20.2%)이며,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구 중에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는 2010년 244천명(전국 실업자의 26.5%)으로 실업률은 4.7%(전국 3.7%)이다. 전국과 비교하면 서울은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의 증가율이 전국에 비해 낮은 반면, 실업률은 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표 III-5> 서울시 주요 노동시장지표

	전국				서울			
	2000	2005	2010	연평균 증감률 ('00-10)	2000	2005	2010	연평균 증감률 ('00-10)
15세 이상 인구 (천명)	36,186	38,300	40,590	1.2	8,015	8,115	8,384	0.5
경제 활동 인구 (천명)	22,134	23,743	24,748	1.1	4,917	5,135	5,180	0.5
취업자 (천명)	21,156	22,856	23,829	1.2	4,668	4,890	4,936	0.6
실업자 (천명)	979	887	920	-0.6	250	246	244	-0.2
비경제 활동 인구 (천명)	14,052	14,557	15,841	1.2	3,097	2,980	3,205	0.3
경제 활동 참가율 (%)	61.2	62	61	0.0	61.3	63.3	61.8	0.1
실업률 (%)	4.4	3.7	3.7	-1.7	5.1	4.8	4.7	-0.8
고용률 (%)	58.5	59.7	58.7	0.0	58.2	60.3	58.9	0.1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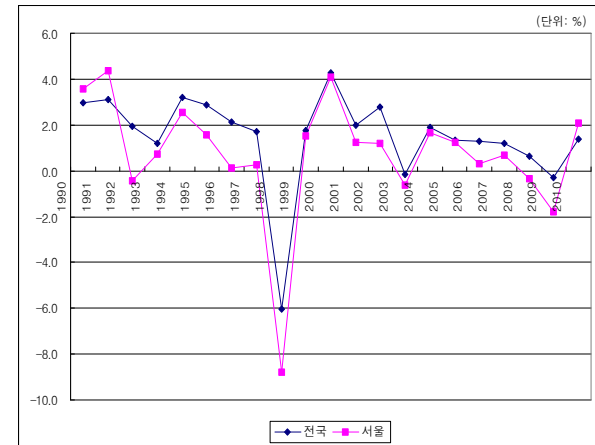
[그림 III-2] 서울시 주요 노동시장지표 추이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포털

전체 취업자의 증가 추이를 전국과 대비해 보면, 지난 20년간 전국의 취업자 연평균 증가율은 1.4%였으며, 서울시는 0.5%로 서울시가 평균 0.9%p 낮은 수준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91년 이전 전국 수준보다 상회하던 취업자 증가율이 1992년 이후 전국 수준보다 하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외환위기 당시와 2008년 이후 금융위기 시기 등 심각한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전국 수준보다 크게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III-3] 서울시와 전국의 취업자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포털

1990년 이후의 취업자 증가율을 몇몇 구간으로 나누어 볼 경우에도 서울시의 취업자 증가율이 전국에 비해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1996~2000년 기간 동안은 전국의 연평균 증가율이 0.7%씩 증가했지만, 서울시는 연평균 0.7%씩 감소하였다.

〈표 III-6〉 서울시 취업자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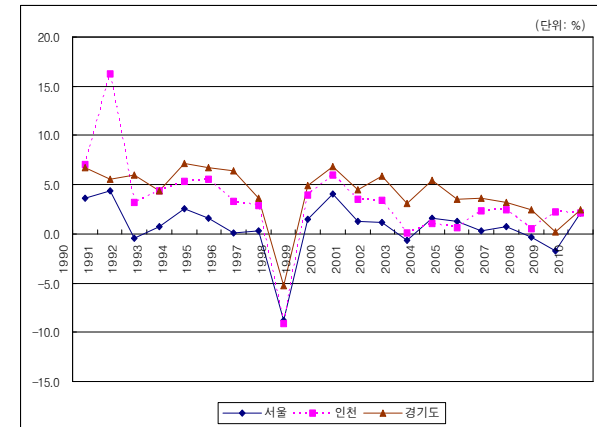
(단위: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90-95	96-00	01-05	06-10
전국	1.3	1.3	1.2	0.6	-0.3	1.4	2.5	0.7	1.6	0.8
서울	1.2	0.3	0.7	-0.4	-1.8	2.1	1.7	-0.7	0.9	0.2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포털

수도권 취업자 증가율을 살펴보면, 서울시에 비해 인천 및 경기 지역의 취업자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의 취업자 증가율은 90년대 초까지 연평균 7~8%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하게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경기지역 또한 90년 초중반까지 약 6%대의 취업자 증가율을 보이고 이후에도 약 3% 이상 수준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4] 수도권 취업자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포털

〈표 III-7〉 수도권 취업자 증가율 추이

(단위: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90-95	96-00	01-05	06-10
서울	1.2	0.3	0.7	-0.4	-1.8	2.1	1.7	-0.7	0.9	0.2
인천	0.7	2.3	2.4	0.6	2.2	2.1	6.9	1.2	1.8	1.9
경기	3.5	3.6	3.2	2.4	0.2	2.4	6.0	3.2	4.5	2.4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포털

다. 산업별 고용구조

서울시 산업별 고용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는 1990년 21천명에서 2010년에는 6천명으로 지속적인 하락에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건설업은 1990년 402천명에서 2010년 374천명으로 연평균 0.4%씩 꾸준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은 1990년 1,320천명에서 연평균 4.4%씩 감소하여 2010년에는 532천명으로 나타났고,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8%(1990년)에서 10.8%(2010년)로 감소하였다.

〈표 III-8〉 서울시 산업별 취업자

	산업별	취업자수			연평균 증감률		
		1990	2000	2010	'90-00	'00-10	'90-10
전 국	전산업	18,085	21,156	23,829	1.6	1.2	1.4
	농림어업	3,237	2,243	1,566	-3.6	-3.5	-3.6
	광공업	4,990	4,310	4,049	-1.5	-0.6	-1.0
	제조업	4,911	4,293	4,028	-1.3	-0.6	-1.0
	건설업	1,346	1,580	1,753	1.6	1.0	1.3
	도소매,음식 숙박업	3,935	5,752	5,469	3.9	-0.5	1.7
	사업,개인,공공 서비스및기타	3,583	5,195	8,158	3.8	4.6	4.2
	전기,운수, 창고,금융	993	2,076	2,834	7.7	3.2	5.4
	전산업	4,424	4,668	4,936	0.5	0.6	0.5
	농림어업	21	10	6	-7.2	-5.0	-6.1
서 울	광공업	1,325	893	533	-3.9	-5.0	-4.5
	제조업	1,320	892	532	-3.8	-5.0	-4.4
	건설업	402	350	374	-1.4	0.7	-0.4
	도소매,음식 숙박업	1,233	1,478	1,340	1.8	-1.0	0.4
	사업,개인,공공 서비스및기타	1,177	1,417	1,894	1.9	2.9	2.4
	전기,운수, 창고,금융	266	519	790	6.9	4.3	5.6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포털

반면에 전기·운수·창고·금융업은 연평균 5.6%씩 증가해 1990년대비 약 524천명이 증가한 790천명으로,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0%(1990년)에서 10.0%(2010년)로 증가하였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는 연평균 2.4%씩 증가하여 2010년 1,894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연평균 0.4%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조업의 1990년대 이후 비중감소는 제조업의 서비스화 진전의 영향으로 과거 제조업에 속해있던 업종들이 분할되면서 서비스업에 재편되어든데 크게 기인하고 있다.

서비스업의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에서 취업자 수 증가를 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I-9〉 서울시 산업별 취업자 비중

	1990	2000	2010	비중차('90-10)
전산업	100.0	100.0	100.0	-
농림어업	0.5	0.2	0.1	-0.4
광공업	30.0	19.1	10.8	-19.2
제조업	29.8	19.1	10.8	-19.1
건설업	9.1	7.5	7.6	-1.5
도소매,음식숙박업	27.9	31.7	27.1	-0.7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	26.6	30.4	38.4	11.8
전기,운수,창고,금융	6.0	11.1	16.0	10.0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포털

수도권 산업별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산업별 부가가치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제조업의 비중이 타 수도권에 비해 낮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제

조업의 비중이 23.5%,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가 32.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경기지역은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가 35.2%, 도소매, 음식숙박업이 22.3%로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 산업별 부가가치와 동일하게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또한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표 III-10〉 수도권 산업별 취업자 비중(2010년)

	서울	인천	경기
전산업	100.0	100.0	100.0
농림어업	0.1	1.5	3.0
광공업	10.8	23.6	20.0
제조업	10.8	23.5	19.9
건설업	7.6	8.6	6.8
도소매,음식숙박업	27.1	21.1	22.3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	38.4	32.8	35.2
전기,운수,창고,금융	16.0	12.4	12.7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포털

라. 직업별 고용구조

서울시 직업별 취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2004년~2010년 사이에 가장 큰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할 직업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4.9%)'이며, 그 뒤를 이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3.6%)', '단순노무종사자(2.9%)', '사무종사자(0.5%)' 등이다. 이들 직업의 취업자 증가율은 전

체 평균증가율(0.4%)보다 높다. 반면,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는 4.0%로 가장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판매종사자(2.2%)', '관리자(0.7%)' 등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는 연평균 4.9%씩 증가하여 2004년 6천명에서 2010년에는 8천명으로 증가하였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도 연평균 3.5% 증가하여 2004~2010년의 기간 중 239천명이 증가하여 전체 직업 중에서 취업자수가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직업에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04년 20.9%에서 2010년에는 25.3%로 1.5%p 증가하였지만 전국대비 비중은 동기간 중에 29.2%에서 27.4%로 다소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전문가 직업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 지식기반경제에서 전문인력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의 증가는 의외의 결과이지만 이는 도시민의 귀농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고, 0.2%대로 가장 낮은 비중을 지니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실질적인 취업자의 증가는 2천명 수준이다.

〈표 III-11〉 서울시 직업별 취업자

	직업별	취업자수			연평균 증감율 (‘04-10)
		2004	2007	2010	
전 국	전직종	22,557	23,433	23,829	0.9
	관리자	599	601	562	-1.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464	4,050	4,571	4.7
	사무 종사자	3,297	3,388	3,739	2.1
	서비스 종사자	2,597	2,586	2,434	-1.1
	판매 종사자	3,205	3,111	2,934	-1.5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697	1,620	1,441	-2.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2,356	2,355	2,238	-0.9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589	2,653	2,695	0.7
	단순노무 종사자	2,752	3,068	3,215	2.6
서 울	전직종	4,831	4,940	4,936	0.4
	관리자	182	149	175	-0.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012	1,189	1,251	3.6
	사무 종사자	838	818	865	0.5
	서비스 종사자	563	569	549	-0.4
	판매 종사자	801	733	701	-2.2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6	6	8	4.9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598	553	467	-4.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12	309	306	-0.3
	단순노무 종사자	518	614	614	2.9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포털

‘사무종사자’은 연평균 0.5%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2004년 3,297천명의 취업자가 2010년에는 3,971천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직업에서 사무직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04년 17.3%에서 2010년에는 17.5%로 0.2%p 증가하였다.

‘단순노무종사자’은 지식기반사회의 발전에 따라 전문핵심인력 못지 않게 단순기능인력으로 대표되는 이들 직업의 인력수요도 꾸준하게 이어져 2010년에는 2004년 대비 96천명이 증가한 614천명으로 나타났다.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는 동기간 중 가장 큰 연평균 4.0%의 감소율을 기록해 2010년에는 2004년 대비 131천명이 감소한 467천명으로 나타났다.

〈표 III-12〉 서울시 직업별 취업자 비중 추이

직업별	2004	2007	2010	비중차 (‘04-10)
전직종	100.0	100.0	100.0	-
관리자	3.8	3.0	3.5	-0.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0.9	24.1	25.3	4.4
사무 종사자	17.3	16.6	17.5	0.2
서비스 종사자	11.7	11.5	11.1	-0.5
판매 종사자	16.6	14.8	14.2	-2.4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0.1	0.1	0.2	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2.4	11.2	9.5	-2.9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6.5	6.3	6.2	-0.3
단순노무 종사자	10.7	12.4	12.4	1.7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포털

‘판매종사자’은 연평균 2.2%의 감소율을 기록하여 2004년 801천명의

취업자가 2010년에는 701천명으로하여 전체 직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또한 2004년 16.6%에서 2010년에는 14.2%로 감소하였다.

〈표 III-13〉 서울시 직업별 취업자 비중 추이(전국대비)

직업별	2004	2007	2010	비중차 (‘04-10)
전직종	100.0	100.0	100.0	-
관리자	3.8	3.0	3.5	-0.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0.9	24.1	25.3	4.4
사무 종사자	17.3	16.6	17.5	0.2
서비스 종사자	11.7	11.5	11.1	-0.5
판매 종사자	16.6	14.8	14.2	-2.4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0.1	0.1	0.2	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2.4	11.2	9.5	-2.9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6.5	6.3	6.2	-0.3
단순노무 종사자	10.7	12.4	12.4	1.7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포털

‘관리자’는 서울 전체 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대로 낮은 비중이지만 전국대비 비중은 30%대로 전국 관리직의 약 1/3이 서울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종사자’는 연평균 0.4%의 감소율을 기록하여 2004년 563천명의 취업자가 2010년에는 549천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직업에서 서비스종사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04년 11.7%에서 2010년에는 11.1%로 다소 감소하였다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는 연평균 0.3%의 감소율을 기록하여 동기간 중 6천명이 감소하였다. 이에 전체 직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2004년 6.5%에서 2010년에는 6.2%로 다소 감소하였다.

전국대비 서울시 취업자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관리자, 서비스 종사자,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중은 증가하였지만,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판매종사자, 기능직 및 조립조작직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4〉 수도권 직업별 취업자 비중(2010년)

직업별	서울	인천	경기
전직종	100.0	100.0	100.0
관리자	3.5	2.3	2.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5.3	18.3	23.0
사무 종사자	17.5	16.9	17.7
서비스 종사자	11.1	9.8	9.1
판매 종사자	14.2	12.1	11.9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0.2	1.3	2.6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9.5	10.6	8.5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6.2	15.4	11.6
단순노무 종사자	12.4	13.0	13.5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포털

수도권 직업별 취업자 비중은 살펴보면, 2010년 현재 서울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판매종사자 및 관리자의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는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기 지역에서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나 직업별 취업자에서도 지역별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마. 종사상지위별 고용구조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우선 크게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는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그리고 일용근로자를 의미하고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주, 자영자, 무급 가족종사자를 의미한다.

서울의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1990년 3,182천명에서 2010년 3,733천명으로 연평균 0.8씩 증가하여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동기간중에 71.9%에서 75.6%로 증가하였다. 비임금근로자는 1990년 1,242천명에서 2010년 1,203천명으로 연평균 0.2%씩 감소하여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동기간중에 28.1%에서 24.4%로 감소하였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4.9%(1990년)에서 42.5%(2010년), 임시근로자는 25.1%(1990년)에서 24.6%(2010년), 일용근로자는 12.0%(1990년)에서 8.5%(2010년),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주는 22.2%(1990년)에서 20.8%(2010년), 무급가족종사자는 5.8%(1990년)에서 3.6%(2010년)의 비중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III-15〉 서울시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			연평균 증감률		
		1990	2000	2010	'90-00	'00-10	'90-10
전 국	임금근로자	10,950	13,360	16,971	2.0	2.4	2.2
	상용근로자	5,938	6,395	10,086	0.7	4.7	2.7
	임시근로자	3,171	4,608	5,068	3.8	1.0	2.4
	일용근로자	1,840	2,357	1,817	2.5	-2.6	-0.1
	비임금근로자	7,135	7,795	6,858	0.9	-1.3	-0.2
	자영업자	5,068	5,864	5,592	1.5	-0.5	0.5
	무급가족종사자	2,067	1,931	1,266	-0.7	-4.1	-2.4
	소계	18,085	21,156	23,829	1.6	1.2	1.4
서 울	임금근로자	3,182	3,261	3,733	0.2	1.4	0.8
	상용근로자	1,542	1,341	2,096	-1.4	4.6	1.5
	임시근로자	1,111	1,347	1,214	1.9	-1.0	0.4
	일용근로자	529	573	422	0.8	-3.0	-1.1
	비임금근로자	1,242	1,407	1,203	1.3	-1.6	-0.2
	자영업자	984	1,139	1,025	1.5	-1.0	0.2
	무급가족종사자	257	268	178	0.4	-4.0	-1.8
	소계	4,424	4,668	4,936	0.5	0.6	0.5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포털

2010년 전국의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42.3%, 임시근로자가 21.3%, 일용근로자가 7.6%이었고,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가 23.5%, 무급가족종사자가 5.3%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비율을 보면 서울은 33.1%로 전국평균 28.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서울시 취업자가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낮고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표 III-16〉 서울시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비중 추이

종사상지위별	1990	2000	2010	비중차 (’90-10)
임금근로자	71.9	69.9	75.6	3.7
상용근로자	34.9	28.7	42.5	7.6
임시근로자	25.1	28.9	24.6	-0.5
일용근로자	12.0	12.3	8.5	-3.4
비임금근로자	28.1	30.1	24.4	-3.7
자영업자	22.2	24.4	20.8	-1.5
무급가족종사자	5.8	5.7	3.6	-2.2
소계	100.0	100.0	100.0	-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포털

〈표 III-17〉 서울시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비중 추이(전국대비)

종사상지위별	1990	2000	2010	비중차 (’90-10)
임금근로자	29.1	24.4	22.0	-7.1
상용근로자	26.0	21.0	20.8	-5.2
임시근로자	35.0	29.2	24.0	-11.1
일용근로자	28.8	24.3	23.2	-5.5
비임금근로자	17.4	18.1	17.5	0.1
자영업자	19.4	19.4	18.3	-1.1
무급가족종사자	12.4	13.9	14.1	1.6
소계	24.5	22.1	20.7	-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포털

전국대비 서울시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9.1%(1990년)에서 22.0%(2010년)로 감소하였고, 그 중에서 임시근로자의 비중이 35.1%(1990년)에서 24.0%(2010년)로 11.1%p 감소하였다. 비임금근로자의 동기간중에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12.4%(1990년)에서 14.1%(2010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의 무급가족종사자의 취업자 감소폭에 비해 서울의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폭이 작은 것에 기인하고 있다.

바. 학력별 고용구조

전국적으로 고졸이하의 취업자는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대졸이상의 취업자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현재 서울의 취업자 중 대졸 이상의 비중은 46.6%로 1990년에 비해 25%p 증가하였고 이 중 대학교졸이상 비중은 17.5%(1990)에서 35.2%(2010)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에 고졸이하의 취업자 비중은 78.4%(1990)에서 53.4%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취업자의 절반이상이 고졸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표 III-18〉 서울시 학력별 취업자

	교육정도별	취업자수			연평균 증감률		
		1990	2000	2010	'90-00	'00-10	'90-10
전국	초졸이하	5,264	3,590	2,594	-3.8	-3.2	-3.5
	중졸	3,532	3,031	2,342	-1.5	-2.5	-2.0
	고졸	6,814	9,325	9,618	3.2	0.3	1.7
	대졸이상	2,475	5,209	9,275	7.7	5.9	6.8
	전문대졸	621	1,579	2,913	9.8	6.3	8.0
	대학교졸이상	1,854	3,630	6,362	6.9	5.8	6.4
	소 계	18,085	21,156	23,829	1.6	1.2	1.4
서울	초졸이하	607	432	298	-3.3	-3.6	-3.5
	중졸	821	624	405	-2.7	-4.2	-3.5
	고졸	2,041	2,096	1,932	0.3	-0.8	-0.3
	대졸이상	955	1,516	2,300	4.7	4.3	4.5
	전문대졸	181	339	561	6.5	5.2	5.8
	대학교졸이상	774	1,177	1,739	4.3	4.0	4.1
	소 계	4,424	4,668	4,936	0.5	0.6	0.5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포털

전국과 서울의 학력별 취업자 추이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고졸 취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시는 고졸 취업자가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대졸이상의 취업자가 경우에는 전국은 연평균 6.8%씩 증가하는 반면 서울의 전국에 비해 다소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III-19〉 서울시 학력별 취업자 비중

교육정도별	1990	2000	2010	비중차 (‘90-10)
초졸이하	13.7	9.3	6.0	-7.7
중졸	18.6	13.4	8.2	-10.4
고졸	46.1	44.9	39.1	-7.0
대졸이상	21.6	32.5	46.6	25.0
전문대졸	4.1	7.3	11.4	7.3
대학교졸이상	17.5	25.2	35.2	17.7
소 계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포털

따라서 전국대비 서울시 학력별 취업자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대졸 이상의 취업자 비중이 38.6%(1990)에서 24.8%로 크게 감소하였고, 고졸 이하의 비중 또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III-20〉 서울시 학력별 취업자 비중(전국대비)

교육정도별	1990	2000	2010	비중차 (‘90-10)
초졸이하	11.5	12.0	11.5	0.0
중졸	23.2	20.6	17.3	-6.0
고졸	30.0	22.5	20.1	-9.9
대졸이상	38.6	29.1	24.8	-13.8
전문대졸	29.1	21.5	19.3	-9.9
대학교졸이상	41.7	32.4	27.3	-14.4
소 계	24.5	22.1	20.7	-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포털

제4장 서울시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전망

제1절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취업구조 변화

최근 들어 지식정보화시대로의 급격한 이행과 국제적 무한경쟁시대의 도래 등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환경 변화의 핵심은 크게 정보화와 세계화로 표현할 수 있다. 세계화가 국경 없는 경쟁체제로 경제환경이 변화되고 있다는 현상 자체를 지칭한 것이라면 정보화는 이러한 세계화를 이루어내는 하부구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정보화란 컴퓨터와 통신의 발달로 말미암아 정보가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유통되게 된다는 것으로 이는 기술적 측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보를 갖고 운용하는 인간의 능력에도 상당히 좌우된다. 소위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은 기술이 기계에 내재되기 보다는 인간에 내재되는 특성이 강해 기존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와는 달리 휴먼웨어(human ware)로 불린다. 정보기술에의 투자란 곧 인간에 대한 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정보기술의 확산은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축적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 디지털경제시대의 급속한 진전 속에서 정보통신기술은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의 주요한 원천으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지식기반 경제하에서 지식의 창출과 전파, 활용 등 지식자본의 가치 창출의 전 과정에서 디지털 및 네트워크화 등으로 정보통신기술의 역할이 지대해짐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이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정보화·세계화와 같은 경제환경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⁸⁾

첫째, 지식근로자에 대한 수요 증대이다. 정보화와 기술·지식 집약

화에 따라 인력수요 측면에서 정보처리 능력과 관련된 기술훈련이 갖추어진 근로자의 활용이 높아짐에 따라 주로 고학력·고숙련 근로자 등 지식근로자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저학력·저기술의 근로자와 생산관련직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생산관련직에서도 핵심기술과 기능인력에서 요구되는 기능·기술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휴먼웨어의 축적을 위하여 개인의 자기개발, 공교육에서의 기술, 정보교육 및 기업 측의 직업훈련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향후 지식기반 산업의 확대, 정보화·세계화 및 기업간·국가간 경쟁의 심화와 같은 현상에 따라 고용구조는 급속한 속도로 변화할 전망이다. 지식기반산업 분야의 취업자 확대와 함께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수요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여겨진다. '정보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동화로 인력대체가 가능한 생산인력 및 사무보조인력(back-office workers)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지만 자동화될 수 없는 창의적 인력, 경영자, 대인서비스인력(front-office workers)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한편 핵심 근로자층에 대해서는 인적자원투자를 증대하고, 보수도 높아지지만, 주변부 단순기술·기능인력의 업무는 새로운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효과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이들의 수요는 감소하고 이는 근로자간 임금(소득)격차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노동유연성의 확대이다.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제품 사이클이 단축되고, 소비자의 기호가 수시로 변화하며, 구매선의 즉각적인 이동이 빈번해지는 등 기업환경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은 제품수요와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유연화를 도모하고 있다. 노동의 유연화란 수량적 유연화, 기능적 유연화, 임금 유연화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수량적 유연화란 핵심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을 부여하고 주변부 근로자는 경기변동의 완충작용으로 활용한다.

수량적 유연성이 나타난 형태로는 정리하고, 파견근로, 탄력적 근로(변형근로) 등인데 상용보다는 임시, 일용,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의 취업형태를 취한다. 근무형태 면에서도 재택근무나 재량근무제 등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취업형태도 한층 다양해지고 있다. 기능적 유연화란 생산조건이 변할 때 직무를 변화시켜 적응력을 높이는 방법인데

8) 이규용 외(2003), 「노동시장구조변화와 특징」 참조.

다기능화, 배치전환, 작업장간 노동이동, 신인사제도 등을 말한다. 임금 유연화란 연공급 성격을 직무·직능급으로 바꾸어 능력과 효율을 중시하는 임금체제로 이동함을 가리킨다. 연공서열형 승진·급여체계에서 능력실적형 승진·급여체계로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 유연화가 시대적 추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유연화의 추구방향에 따른 정책과제를 안고 있음도 사실이다. 즉 수량적 유연화에 따른 고용불안의 증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비정규직의 확대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핵심근로자에게는 높은 임금과 좋은 경력개발 및 직업교육훈련투자를 통해 고성과와 고효율 조직을 추구하지만 주변부 근로자는 경기변동의 완충요소로 활용, 인력관리 비용절감 대상으로 간주함으로써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다.

셋째, 외부노동시장의 활성화와 고용불안 증대이다. 세계화에 따른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구조조정이 상시화되고 이에 따른 수량적 유연성의 확대로 인해 기업은 수시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고 잉여인력을 해고하는 인력조정 신축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채용 및 승진이 폐쇄적인 ‘내부노동시장’ 중심에서 ‘외부노동시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개방형으로 이행하고 근로자의 노동이동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한 기업 내에서 평생의 직업경로를 완결 지을 수 있다고 하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퇴조하고 있으며, 개인들도 더 이상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개인들에게는 평생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숙련 향상(skill upgrading)을 통해 평생 고용, 즉 직장안정이 아닌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안정 또는 소득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넷째, 평생학습체계의 구축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디지털 경제, 지식기반 경제하에서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자본이나 기술에서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지닌 지식근로자 즉, 인적자원으로 변화하여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본 및 교육훈련투자를 통해 지식근로자가 기업 전략차원의 요소로 고려된다. 그러나 기업조직의 연성화 및

유동화, 기업의 내부노동시장의 약화와 평생직장의 개념 약화, 그리고 직장탐색 비용의 감소는 노동이동을 증대시키고 기업과 노동 간의 장기적 결합을 어렵게 한다. 이에 따라 기업이 근로자에게 훈련을 제공할 인센티브가 작아지는 측면도 존재한다.

근로자들도 평생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숙련 향상(skill upgrading)을 통해 평생 고용, 즉 직장안정이 아닌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안정 또는 소득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경력 경로(career path)와 관련하여 기업에의 의존성을 줄일 것이며 자신의 경력 경로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직업 훈련 등에서의 기업 비중이 줄게 되면서 숙련형성을 위한 투자 수준이 과소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은 효과적인 평생학습체계의 구축이 앞으로의 인적자원개발에서 핵심과제가 될 것임을 제시한다.

따라서 전문기술직은 물론이고 모든 직종의 근로자에게 직업능력의 향상과 유지가 노동시장에서 고용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필수조건이 되며 이를 위한 평생학습체계의 구축 및 개인 주도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국가차원에서 인적자원 개발정책의 한 축으로 체계화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다섯째, 노동시장의 불일치문제이다. 지식기반산업의 대두, 급속한 기술발전, 세계화, 정보화, 경제의 소프트화 등으로 대변되는 21세기에 고용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기술·기능 불일치(skill mismatch)에 의한 구조적 실업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 및 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라 단순노동의 중요성이 감소하여 생산직 및 농업수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한편, 고학력·고숙련을 요구하는 전문·기술직이 증대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의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기능·기술 수준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견된다. 즉, 고급인력이 양적으로는 팽창하였으나 질적 수준의 문제가 있으며, 인력양성의 체계가 산업계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이공계 등 전문·기술 분야보다는 인문·사회계열 대졸자가 많이 배출되는 인력수급구조의 불균형에도 이러한 인력부족현상의

주요한 원인이 있다.

제2절 서울시 취업구조 변화 전망

가. 서울시 취업구조 변화 전망

서울지역 인력에 대한 수요전망은 전국차원의 인력수요 전망결과⁹⁾를 이용하여 서울지역의 인력수요 예측치를 도출할 수 있다. 먼저, 기존의 전국 및 서울지역의 중장기 경제전망을 토대로 전국에서 서울지역의 경제여건(생산, 취업자)이 차지하는 비중을 전망한다. 이 비중이 전국 인력수요에서 서울지역이 차지하는 비중과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앞서 도출한 전국의 인력수요 전망 결과에 대입하여 서울지역의 인력수요 전망치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서울지역 인력수요 전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수는 2010년 4,936천명에서 연평균 0.2%씩 증가하여 2020년에는 5,055천명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는 2010년 6천명에서 2020년에는 5천명으로 지속적인 하락에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건설업도 2010년 374천명에서 연평균 0.4%씩 감소하여 2020년에는 359천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공업은 2010년 533천명에서 가장 큰 연평균 5.0%씩 감소하여 2020년에는 318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8%(2010년)에서 6.3%(2020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서비스업 중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의 취업자 수는 연평균 1.9%씩 증가해 2010년 대비 약 382천명이 증가한 2,276천명으로,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8.4%(2010년)에서 45.0%(2020년)로 6.7%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기·운수·창고·금융의 취업자수도

9) 기존 전망결과인 한국고용정보원(2010)을 활용함.

연평균 1.7%씩 증가하여 2020년에 933천명으로,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6.0%(2010년)에서 18.5%(2020년)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V-1〉 서울시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

산업별	취업자			연평균 증감률		
	2010	2015	2020	'10-15	'15-20	'10-20
전산업	4,936	4,957	5,055	0.1	0.4	0.2
농림어업	6	6	5	-1.7	-1.6	-1.7
광공업	533	411	318	-5.1	-5.0	-5.0
건설업	374	366	359	-0.4	-0.4	-0.4
도소매,음식숙박업	1,340	1,246	1,164	-1.4	-1.4	-1.4
사업,개인,공공 서비스및기타	1,894	2,072	2,276	1.8	1.9	1.9
전기,운수, 창고,금융	790	857	933	1.6	1.7	1.7

이처럼 제조업의 1990년대 이후 비중감소는 제조업의 서비스화 진전의 영향으로 과거 제조업에 속해있던 업종들이 분할되면서 서비스업에 재편되어든데 크게 기인하고 있다.

서비스업은 음식숙박업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분야가 취업자 수 증가를 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V-2〉 산업별 취업자 비중 전망

산업별	2010	2015	2020	비중차 (‘10-20)
전산업	100.0	100.0	100.0	-
농림어업	0.1	0.1	0.1	0.0
광공업	10.8	8.3	6.3	-4.5
건설업	7.6	7.4	7.1	-0.5
도소매,음식숙박업	27.1	25.1	23.0	-4.1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	38.4	41.8	45.0	6.7
전기,운수,창고,금융	16.0	17.3	18.5	2.5

직업별 취업자 수의 전망은 학교를 졸업한 후 처음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졸업생이 일자리를 선택하거나 현재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고자 할 때 제공할 수 있는 직업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이러한 직업정보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직업별 전망이 요구되나 이하에서의 전망은 통계적 한계로 인하여 직업 중분류 수준에서 제시되었다.

직업별 취업자 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산업별 취업자 전망에 과거의 추세를 바탕으로 작성한 직업별 비중 전망을 적용하면 각 산업 내 직업별 취업자 수를 추정할 수 있다. 이 자료를 이용해 당해 연도의 각 산업 내 직업별 취업자 전망을 직업 기준으로 모든 산업에 대해 합산을 하게 되면 직업별 취업자 전망이 도출된다¹⁰⁾.

서울시 직업별 취업자 수의 전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2010년~

10) 산업내 직업별 취업자 비중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널리 사용된다. 하나는 과거의 산업-직업 행렬을 이용하여 다중비례행렬방법(RAS)으로 미래의 산업-직업 행렬을 도출하는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산업-직업 행렬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산업내 직업별 취업자의 과거 자료를 이용하여 시계열모형(예를 들어 ARIMA모형 등)을 구축한 후 예측을 실시해서 비중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2020년 사이에 가장 큰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직업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3.7%)’이며, 그 뒤를 이어 ‘사무 종사자(0.5%)’, ‘단순노무 종사자(0.5%)’ 등이다. 이들 직업의 취업자 증가율은 전체 평균증가율(0.2%)보다 높다. 반면,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는 6.7%로 가장 큰 감소율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판매 종사자(2.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5%)’ 등의 직업들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V-3〉 서울시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

직업별	취업자수			연평균 증감률		
	2010	2015	2020	‘10-15	‘15-20	‘10-20
전직종	4,936	4,957	5,055	0.1	0.4	0.2
관리자	175	170	167	-0.5	-0.4	-0.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251	1,535	1,797	4.2	3.2	3.7
사무 종사자	865	886	906	0.5	0.4	0.5
서비스 종사자	549	508	462	-1.5	-1.9	-1.7
판매 종사자	701	629	556	-2.1	-2.4	-2.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8	7	7	-1.3	-1.6	-1.5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467	324	233	-7.1	-6.4	-6.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06	294	279	-0.8	-1.0	-0.9
단순노무 종사자	614	604	647	-0.3	1.4	0.5

전체 직업 중에서 해당 기간 중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직업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였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연평균 3.7%씩 증가해 취업자 수는 2010년 1,251천명에서 2020년에는 1,797천명으로, 546천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체 직업에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10년 25.3%에

서 2020년에는 35.6%로 10.2%p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전문가 직업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지식기반경제에서 전문인력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사무 종사자’는 연평균 0.5%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2010년 865천명의 취업자가 2020년에는 906천명으로, 41천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직업에서 사무 종사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10년 17.5%에서 2020년에는 17.9%로 0.4%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단순노무직’은 지식기반사회의 발전에 따라 전문핵심인력 못지 않게 단순기능인력으로 대표되는 이들 직업의 인력수요도 꾸준히 이어져 2020년에는 2010년 대비 33천명이 증가한 647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연평균 감소율을 보이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는 2010~2020년 기간 중 연평균 6.7%의 감소율을 기록해 2020년에는 2010년 대비 234천명이 감소한 233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전체 직업에서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10년 9.5%에서 2020년에는 4.6%로 4.8%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판매 종사자’는 연평균 2.3%의 감소율을 기록하여 2010년 701천명의 취업자가 2020년에는 556천명으로, 145천명이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체 직업에서 판매 종사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10년 14.2%에서 2020년에는 11.0%로 3.2%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직’은 연평균 1.7%의 감소율을 기록하여 2010년 549천명의 취업자가 2020년에는 462천명으로, 87천명이 감소할 전망이다.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및 ‘관리자’ 또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IV-4〉 직업별 취업자 비중 전망

직업별	2010	2015	2020	비중차 (‘10-20)
전직종	100.0	100.0	100.0	
관리자	3.5	3.4	3.3	-0.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5.3	31.0	35.6	10.2
사무 종사자	17.5	17.9	17.9	0.4
서비스 종사자	11.1	10.2	9.1	-2.0
판매 종사자	14.2	12.7	11.0	-3.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2	0.2	0.1	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9.5	6.5	4.6	-4.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6.2	5.9	5.5	-0.7
단순노무 종사자	12.4	12.2	12.8	0.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2010~2020년 기간 중 1차산업으로 표현되는 농림수산업의 비중 축소와 해당 산업의 기계화에 따른 필요인력 감소 등의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과 같이 향후 2020년까지 서울시 취업자 수의 증가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산업별 전망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지식에 기반을 둔 전문기술과 국제적인 개방에 대응한 서비스분야의 전문인력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한 취업구조 변화 전망

2012년 말까지 세종시와 전국의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될 공공기관은 총 157개 기관에 14,400명의 인력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는 100개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28,163명의 인력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전기관의 인원이 모두 이전하게 되면, 직접적인 인력유출의 규모는 28,163명에 이르며, 이는 2010년 서울시 취업자 4,936천명의 약 0.6%에 해당하며, 2013년 이후 매년의 인력수요 전망치에서 이들 직접적 인력유출 규모만큼을 차감한 것이 서울시의 인력수요 전망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 취업자 전망치는 2015년에는 4,929천명, 2020년에는 5,027천명으로 전망치가 감소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직접적인 효과 이외에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인해 해당 기관과 협력관계 또는 거래관계에 있는 기관이나 인력의 이전이 추가될 경우 인력수요 전망치의 추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2005년)에 따르면 서울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직접적인 고용감소가 2013년 이후 60,419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2010년 서울시 취업자의 약 1.2%에 해당하며, 서울시 취업자 전망치는 2015년에는 4,897천명, 2020년에는 4,994천명으로 전망치가 감소해야 할 것이다.

이상일(2006)에 의하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직접적인 고용감소는 2만명인 것으로 가정하여 직접 종사자수 감소 20,000명에 승수효과에 의한 간접적인 감소 108,400명을 합친 128,400명의 취업자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2020년의 산업구조를 예측하기 위해서 고용의 갑작스런 감소가 없을 경우를 상정한 2020년 산업별 고용구조를 우선적으로 예측하고, 그 예측치에서 고용감소를 차감함으로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산업별 고용감소분을 추정하였다. 간접감소는 편의상 2010년 산업구조 비중에 따라 각 산업에 할당하여 차감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연구의 자료를 참고하여 산업별 취업자수 감소분은 아래표와 같다. 서울시 산업별 취업자는 2020년 4,926천명으로 2010년에 비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산업별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는 가장 큰 64천명이 감소분을 보여 2020년 2,212천명으로 연평균 1.6%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전기·운수·창고·금융은 16천명이 감소하여 2020년 916천명으로 연평균 1.5%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소매·음식숙박업도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라 2013년 이후 30천명의 인력유출이 전망되며, 광공업은 11천명, 건설업은 6천명 수준의 인력유출

이 전망된다.

〈표 IV-5〉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서울시 취업자 전망

산업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감소분(명) ¹¹⁾	2010	2015	2020	연평균 증감률 ('10-20)
전산업	128,400	4,936	4,829	4,926	0.0
농림어업	25	6	5	5	-1.7
광공업	11,392	533	399	306	-5.4
건설업	5,555	374	360	354	-0.6
도소매,음식숙박업	30,054	1,340	1,216	1,134	-1.7
사업,개인, 공공서비스및기타	64,437	1,894	2,008	2,212	1.6
전기,운수,창고,금융	16,938	790	840	916	1.5

제3절 지역 노동시장정책(고용정책 및 교육훈련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최근 수년 동안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 관심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고용 없는 성장의 국면에 접어들어 일자리 문제를 중대한 현안으로 직면하게 되면서 현실 노동시장에서 구직자와 일자리의 연계가 지역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부의 고용대책이 실제 지자체 수준에서 집행된다는 점에서 지역 노동시장의 중요성에 대

11) 이상일(2006) 연구 참조(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취업자수 감소=2020년 고용감소가 없는 경우의 산업별 취업자수 전망- 2020년 고용감소를 감안한 경우의 산업별 취업자수 전망)

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노동시장정책 수립을 위해 한국경제가 당면한 중요한 경제적인 현안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수출경기와 내수경기의 양극화, 상위소득과 저소득계층의 소득불평등 심화와 같은 경제의 양극화이다. 둘째,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어, 서울시는 중대한 고용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특히 취약계층의 고용문제는 심각하다. IMF 경제위기 후 조기퇴직자들이 재취업의 어려움으로 영세자영업에 신규로 종사하게 되어 서울의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다소 감소 추세에 있지만 전국 또는 외국 대도시와 비교하여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졌다. 최근 내수경기 침체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향후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수많은 취업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타 업종 또는 직종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일어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기침체와 고용사정 악화로 일자리가 최대의 민생과제로 급부상하면서 지난해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앞 다퉈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고, 올해도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로 삼고 범정부차원의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일자리 대책을 매달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청년인터제 등 긴급 구호나 한시적인 소득보장 대책의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여건에서 청년층, 사무직퇴직자, 고령층, 저소득근로자, 영세자영업자들의 취업을 위한 고용정책은 서울시의 중요한 현안이다. 그러나 고용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산업정책과 연계되어야 하며 구직자들의 특성에 맞는 고용정책 및 교육훈련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에 관한 일정의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고용에 관한 서울시의 책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서울시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볼 때, 고용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고용정책에 대한 정책입안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중앙정부의 고용정책이 지역의 특성과 부합되지 않게 수립·시행될 때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인력수

급 문제를 서울시가 떠맡게 될 경우, 정책에 관한 원인제공자와 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의 행정, 경제, 산업의 중심지인 서울시에 게 고용정책 및 교육훈련정책에 대한 정책입안 참여라는 선도적인 역할 수행이 요구된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대부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종합행정기관이므로, 산업, 교육, 복지정책과 총괄적으로 연계되는 고용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능력 또한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고용정책 및 교육훈련정책의 업무 중 적어도 일부는 지방종합행정의 차원에서 서울시 업무에 편입되어야 한다. 종합행정기관으로서 서울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제정과 조직의 규모면에서 우월할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와 대등한 위치에 있으므로 지역단위에서 시행되는 종합행정기관의 업무를 종합하고 총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당면 경제현안과 노동시장의 계층별 인력특성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청년층 구직자와 중소기업간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능직 및 준전문직 취업을 원하는 청년층을 중소기업직업훈련을 통해 훈련을 받도록 하고 기업에게는 고용보조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인력수요와 급여지급 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병행되면, 이들 청년층의 채용시 고용보조금의 지급에 따른 사중손실 위험을 최소화할 것이며 청년층 고용과 중소기업 인력난해소라는 이중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둘째, 중·고령자의 고용정책에 대한 정책 재정립이다. 조기퇴직한 40~50대 사무직을 비롯한 인력은 재취업을 원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재취업훈련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의 직업훈련 능력이 청년층에 비해 뒤떨어 질 수 있고,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에서 적응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청년층과 별도로 직업훈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서울시 직업훈련기관에서 중·고령자에 맞는 직종훈련 개발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소득불평등의 심화, 자영업자 몰락으로 일용직에 종사하는 저소득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상용

직 등 안정적인 직종으로 재취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의 중요한 애로사항은 훈련기간 중 소득상실이므로 직업훈련 시 훈련수당 지급으로 소득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은 훈련 후 취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직업훈련에 대한 홍보, 직업훈련 시 소득보전, 취업알성 등 취업전달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정책 및 훈련정책을 입안하고 서울시, 기업, 훈련기관, 학교 등 지역의 경제주체들의 정책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이 위원회는 지역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고용정책 및 훈련정책을 마련하고 특히 청년층, 여성층, 저소득근로자, 고령층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채용, 급여 등 신분상의 차별을 받지 않고 취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하고 이를 위한 중소기업지원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정책에 관한 중앙정부와 협력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소득수준의 향상, 인구구조의 고령화, 가계소비의 서비스화 등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서비스업 고용의 중요성은 더욱 배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시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제조업보다 높다는 것은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이 확대될 여지가 있고, 성장 동력화도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업 고용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해서는 업종별 특성에 부합하는 일자리 정책 수립과 더불어 전문 서비스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강화, 서비스업 규모의 영세성 극복 방안 마련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5장 결론

제1절 정책적 시사점

그동안 고용통계는 전국단위로 구축되어 왔고 노동시장 동향 혹은 고용정책에 관한 연구도 전국단위로 이루어졌다. 1990년 말 이후 지역단위 고용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지방정부의 지역 고용정책에 대한 역할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광역 시·도 단위로 지역인적자원과 고용 관련 정책연구와 지역인프라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 고용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 산업별 취업자 정보가 필수적이지만 그간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이를 제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단위 기초 노동통계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일부 시·도에서 전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의 분석을 토대로 지역 산업의 취업자를 추계하고, 더 나아가 향후 인력규모를 전망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이용가능한 지역단위 노동 기초통계의 분석을 통하여 서울시 주요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 및 고용에 관한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한걸음 더 나아가 향후 서울시의 산업별·직업별 인력 전망을 통하여 향후 서울시가 고용정책을 수립하거나 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필요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산업 특성 및 지역의 전략산업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훈련보다는 산업적 특성 예컨대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서울시의 대표적 지역연고 사업인 봉제의복과 인쇄 및 출판 등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종별 협회와 협조하는 직업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예를 들어 봉제의복과 인쇄 및 출판 분야에서 업종별 협회와 협조

하고 있는데, 향후 서울지방노동청에서도 서울시와 협조하여 지역연고 사업에 대하여 업종별로 역량이 인정되는 조합 혹은 협회를 주사업자로 선정하여 인력양성을 추진할 필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지방노동청과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체간 네트워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주민 특성을 반영한 직업훈련과 고용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직업훈련과 고용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훈련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즉 수요자가 필요로 하고 취업을 위해 요구하는 프로그램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교육훈련을 받아도 취업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확실적인 훈련 프로그램 보다는 수요자가 취업에 필요하여 수강한 경우에 이를 지원해 주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 있다. 또한 서울지역의 인구 특성은 청년층이 많으며, 특히 청년층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직업훈련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층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실업 이후 지원하기 보다는 학령기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직업준비교육(직업진로지도)을 지원하고, 대학재학생들에게도 서비스를 미리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세 번째로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한 중·고령자에 대한 고용정책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 복지적 차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퇴직연령 연장, 노동유연성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가 우선 필요할 것이며,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고령자들이 일반 구직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 고용시장에서 청년층과 경쟁하기보다는 돌봄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또한, 평생직업훈련체계를 구축하여 고령자의 고용능력을 유지할 위한 지원이 서울시의 주요한 역할일 것이다.

네 번째로 현재 서울시 서비스업은 경제 내 비중과 그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서비스업의 고용창출력을 배가하면서 질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달리 매우 이질적이고 복잡다기한 특성을 지닌 업종들의 조합이므로 동시다발적으로 고용문제를 접근하기보다는 업종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업은 기술적 혁신이 중요한 제조업과 달리 비기술적 현신이 중요하므로 R&D 위주보다 교육 및 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 마케팅 혁신, 디자인 역량 강화 등 보다 넓은 범주에서 혁신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취업관련 허브 및 정책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지식산업 등 고부가가치 일자리로 취업알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망업종의 구인·구직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시립직업전문학교 간 연계 강화를 통하여 구인·구직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 수립일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기침체와 고용사정 악화로 일자리가 최대의 민생과제로 급부상하면서 경기변화에 대한 새로운 고용정책이 필요하다. 일자리 개발 전담팀을 만들어 청년층 및 고령층과 같은 노동 공급자의 욕구와 희망을 충족시킬 수 있고 민간수요가 있는 일자리를 개발하여야 하고, 생활패러다임, 기술혁신, 소비자 욕구의 변화에 따른 도시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계속 변화하므로 이를 고려한 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방안은 단기적인 일자리 공급 대신 도시환경과 도시문화를 발전시키고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분야에 고용정책을 집중하므로 당면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과 고령화 시대에 따른 복지 및 노동정책 과제를 해결하는 일자리 개발로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제2절 인력수급 전망을 위한 인프라구축 방안

가. 주기적 전망체계 구축

기존의 인력수급 전망 관련 연구들은 전망의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의 활용에서부터 많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관련 자료들 간의 연계의 기초가 되는 분류체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동일한 자료일 경우에도 작성 시기에 따라 분류기준의 불일치 문제가 있어 시계열 자료의 구축이나 활용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법론상으로 선진화된 전망방법을 토대로 우리의 모형을 개발하여 전망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통계자료가 만들어지지 못하였거나 있다하더라도 자료로서 미흡한 경우가 많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만든 이상적인 전망방법은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체변수를 사용하거나 일부 과정을 생략하는 등 유용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결과는 전망과정상에 요구되는 각종 기초자료를 사전에 정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전체적인 몰이해와 장기적인 전략의 부재에 기인하고 있다.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이고 장기적이며 통일된 기준에 따라 분류된 여러 가지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이들 자료는 성격이 다른 여러 기관에서 생성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고 총괄할 책임 있는 정부기관이 필요하다. 담당 정부기관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체계적인 통계정비를 위하여, 부처간의 협조나 예산확보는 물론 전망관련 연구기관 간의 조율도 책임져야 할 것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인력수급 연구를 추진하고, 일시적인 프로젝트 성격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전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보다 수준 높은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전담연구기관의 지정이나 예산확보와 같은 절차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인력수급연구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기능의 부여 및 이를 위한 법적인 뒷받침도 필요할 것이다.

나. 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역모형 개발

기존 대부분의 인력수급 전망연구에서는 국가차원의 수급전망을 실시하고 있고,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인력수급 전망모형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역별 수급전망은 총량전망과의 연계성을 토대로 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하여 보다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우선 인력수급 총량전망을 실시하거나 기존의 총량전망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수급전망을 실시해야 한다.

총량전망과 유리된 지역별 인력수급전망에 의해 과도하게 추정된 분야별 종사자 문제는 분야별 연구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인력수급 전망연구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위험이 크기 때문에 경시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서울시 실정에 적합한 전망모형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서울시 실정에 적합한 전망모형의 개발은 기존 국가차원의 인력수급전망모형을 기본토대로 삼아, 전망단계별로 필요한 기초통계자료의 구축여부와 서울시 고용구조를 감안한 서울시 실정에 적합한 인력수급 전망모형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현재 광역권별로 실시되고 있는 인력수급전망을 좀 더 세부화하여 시도별 특성을 고려한 시도별 인력수급전망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수도권은 산업별 부가가치 및 고용구조가 서울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경기 및 인천 지역은 제조업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인력수급전망을 위해서는 시도별로 세분화된 인력수급전망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 중·장기적 전망연구 확대

기존 인력수급 전망연구들은 적은 예산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연구를 수행하여 전망결과를 발표하고 종료되는 단기적인 일회성 연구들이 대부분이어서 연구의 연속성에 따른 노후화가 축적되지 못하는 한계점

을 지닌다. 인력수급 전망연구는 그 특성상 전망기초 자료의 구축에서 전망모형 개발 및 전망실시, 일정시점이 지난 후 사후 평가를 포함하는 지속적인 모형의 개선이 필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10년 이상 장기적 관점에서 주기적인 연구 추진이 반드시 필요한데, 기존 연구들은 예산상의 문제와 인력수급 분야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일회성으로 끝나고 있어 인력수급 전망연구의 연속성이 없고, 전망연구의 방법이 축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후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력수급 전망연구들이 지니고 있는 단기적·일회성 연구의 제약에서 벗어나,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전망모형의 개선을 통해 전망의 신뢰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는 장기적인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인력수급에 필요한 기초통계체계 인프라를 구축한 후, 이를 토대로 모형을 개발하여 전망을 실시하며, 전망기간이 지난 후에 전망결과에 대한 검정을 통해 모형을 개선(upgrade)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차적인 모형의 개선을 실시하여, 전망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참고문헌

- 강일규(2010),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인적자원 개발 정책 방향과 과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9권 제3호 pp.175-207, 한국인사행정학회.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2010), “광역 지역별 인력수급전망(2009~2018)”, 한국고용정보원.
- _____ (201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2008~2018)”, 한국고용정보원.
- 김경혜(2011), “초고령 사회 서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I) -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전략”, SDI정책리포트 제80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군수 외(2005), “경기도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경기개발연구원.
- 김경환(2008), “세계도시 서울”, 서울경제 제34호 2008년 1월, pp.3-9,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기홍 외(2009), “경기도 4대 전략산업 인력수급전망”,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김범식(2011), “서울시 서비스업 고용구조: 다섯 가지 특징과 향후 정책방향”, SDI정책리포트 제83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박희석 외(2010), “2011년 서울경제 전망”, SDI정책리포트 제78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임동욱 외(1993), “산업구조의 재구조화에 따른 수도권 분산화 정책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제27권 제4호 pp.1379-1392.
- 오영석 외(2010), “경제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확대전략 - 산업정책적 대응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 오준병(2005), “한국경제의 산업구조 변화 요인 분석 - 탈공업화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산업연구원.
- 오호영 외(2007), “KRIVET 직업전망지표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윤형호(2009), “미래지향적 서울시 신일자리 창출 전략”, SDI정책리포트 제40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윤형호 외(2004), “노동시장수급불균형에 따른 서울시 중장기 고용훈련 대책”,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_____ (2009), “서울시 일자리정책 효율화를 위한 기초 노동통계 분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이규용 외(2003), “노동시장구조변화와 특징”, 사회연구 제 4권 2호 pp.15~45, 한국사회조사연구소.
- 이병훈 외(2010), “서울시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에 관한 연구 - 공간적 분절구조를 중심으로”, 서울시연구 제11권 제2호 pp.141-16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이상일(2006), “고용 변동에 따른 인구 규모와 산업 구조 상의 장기적 변화 추정: 2020년 서울을 사례로”, 지리교육논집 50집 pp.27-39, 서울대학교.
- 이상돈 외(2002), “산업구조 변화추이와 직업훈련수요 전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 (2002), “지식기반제조업분야의 인력수요전망 및 양성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 (2003), “국가인력수급 전망연구(III)-서비스 산업중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 (2008),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모형 개발 및 인프라 확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창원 외(1998), “산업인력수급 전망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 (1999), “지식정보 산업화에 따른 직종 변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 (2004), “인력수요 현황과 전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 (2005),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인적자원정책 개선 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 (2006), “인력수급 전망(2006-2015)와 국가인적자원정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성호 외(2010), “세계경제의 구조변화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의 모색”, 산업연구원·시장경제연구원.
- 최용재 외(2008), “한국 산업·무역구조의 중장기 전망”, 산업연구원.